

힐 요한 선교사 JOHN HILL

조 동 호 지음



그 리 스 토 의 교 회 연 구 소

John Hill,
A Great Missionary to Korea

DONG HO CHO

Christian Church Studies, 2011

20-10 Beonyeong 8-gil Kyeryongsi

Choongnam, Korea 321-931

Tel(042)841-9697

머리말

1939년부터 1972년까지 서울과 대전에서 헌신하셨던 고 힐 요한 선교사(2009년 11월 4일 소천)의 추모 2주기를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 사무실에서 2011년 11월 19일 오전 11시에 힐 요한 선교사의 유품(사진첩 2개와 다수의 슬라이드 사진, 네거티브 필름, 소수의 선교서신 복사본) 전달식이 있었다.



좌측부터 이길수 목사, 정영현 목사, 조동호 목사, 최금생 목사, 박윤배 목사, 김순철 목사, 라명환 목사, 권드보라 목사, 민동규 목사

일생을 바쳐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다 열거하자면, 지면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나 충청도와 전라도지역 교회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인물들을 몇 분만 시기별로 추천하라고 한다면, 해방직후부터 62년

말까지는 단연코 김은석 목사를 제1대 사도로, 59년 후반기부터 72년 전반기까지는 힐 요한 선교사를 제2대 사도로 추천코자 한다. 그리고 이 두 분과 동역한 목회자들이 많았으나 특히 교수와 동역자로서 이들과 함께 동역한 결출한 인물들로는 이신 박사와 심영진 목사를 추천할 수 있다. 이신 박사는 66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50-60년대를 김은석 목사와 힐 요한 선교사와 함께 교수와 동역자로서 긴밀하게 사역하였다. 심영진 목사 역시 50년대 말부터 김

은석 목사와 한국 성서 신학교 사역 초기부터 힐 선교사와 함께 긴밀하게 동역하였다. 그리고 72년 6월 힐 요한 선교사가 은퇴한 이후부터 90년대까지는 충청도와 전라도지역의 교회들이 김찬영 목사의 영향력아래서 발전하였다. 김찬영 목사는 1959년부터 한국 성서 신학교에서 힐 요한 선교사의 통역관으로 일하면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군에 입대하였고, 1965년 9월 5일에 도미(渡美)하여 학업을 마치고 1970년 11월 15일 귀국하였다. 1998년 이후로는 중국 훈춘에 거주하면서 중국과 북한 선교에 주력하고 있다. 김은석 목사가 일군 사역을 힐 요한 선교사가 이어갔고, 또 그 뒤를 김찬영 목사가 이어간 것이다.



김은석 목사 이신 박사 힐 요한 선교사 심영진 목사 김찬영 목사

이러한 점에서 이번에 유품의 내용물로 한국에 전달된 힐 요한 선교사의 60년대 사진들은 한국 성서 신학교의 초기 상황과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당대의 형편을 살펴보고 역사를 정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자료들이다. 따라서 화보집 성격의 본 소책자는 힐 요한(John J. Hill) 선교사의 유품(사진첩)을 전달받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쓴 일종의 보고서이다.

이 유품은 힐 선교사의 딸 딸 버지니아(Virginia) 여사가 보관하였던 것으로써 시카고 한인 기독교 방송국장으로 2001년 이후 수고하시는 김순철 목사(미국에서 새소망교회를 개척하여 18년간 목회사역, 시카고지역교회 협의회장, 교역자회 회장, 지역평통자문위원 8년, 그리스도의 교회 미주한인교회총회 총회장 역임, 현 한성미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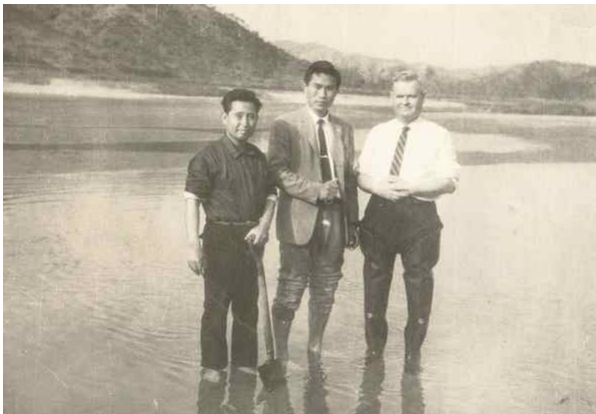


김순철 목사

문회 회장)의 배려와 노고로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산하 한성신학원에 전달되었다.

힐 요한 선교사 시절의 한성(한국성서신학교) 출신 미국 동문들로
는 이은수 목사(제4회, 뉴욕 동산교회), 신영기 목사(제4회, 일리노이
병원 정신과 상담의사), 박경신 목사와 김인숙 사모(제6회, 목회은퇴
후 기도원 사역), 김희영 교수(국제와이즈맨클럽 총재역임), 유근희
목사(제7회, 미국 Disciples of Christ 아시안 교회 담당자 역임), 이
영선 사모(제6회), 하복례 전도사(제6회), 최태시 목사(제7회), 고원필
목사(제8회), 이백호 목사와 박근화 사모(제9회), 현정규 목사와 오순
덕 사모(제19회), 유정숙, 최창효, 장휘명 목사 등이 있다.

힐 요한 선교사 시절의 한성(한국성서신학교) 출신 동문들의 다수
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남아 일생을 그리스도의 교회발전에 헌신하였
다. 힐 요한 선교사는 “1959년 개교이후 한국 성서 신학교는 90명
이상의 젊은이들을 졸업시켰습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한국 그리스
도의 교회의 목회자로 섬기고 있습니다.”고 1972년에 회고하였다. 또
일부는 타 교단에 들어가 성공적인 목회자로서 사역하였다. 이들 가
운데는 복음교회의 윤기열 목사, 라명환 목사, 흥성교회의 유기성 목
사, 인천장로교회의 최정성 목사, 대천교회의 장세동 목사, 예산교회
의 신성철 목사, 인천감리교회의 천명화 목사 등이 있다.



심영진 목사, 김순철 목사(중앙), 힐 요한 선교사

김순철 목사의
회고대로, 힐 요
한 선교사는 일
제치하와 전쟁후
유증으로 궁핍하
고 고단했던 한
국에 오셔서 신
학생들을 “어버
이가 된 심령으
로 가르치시고
입히시고 양육하

셨으며.... 먼 앞날을 내다보시며 된장국의 국거리를 사 나르시던 정

성 어린 손길”을 가지셨던 심성이 매우 따뜻한 분이였다. 1961년 3월 2일에 쓴 춘선(春善)의 감사서신에 따르면, 힐 요한 선교사는 일기가 불순했는데도 불구하고 춘선의 결혼식이 있었던 인천까지 찾아가 축하하고 선물까지 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정성과 생명의 손길이 오늘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있게 하였던 것이다. 본 소책자가 그분의 아름다운 일생의 순간들을 잠시나마 스쳐 비춰주며, 그분의 고맙고 아름다운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2011년 11월 30일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소광(素光) 조동호 목사.

차례

머리말	3
제1장 힐 요한 선교사	9
제2장 모금의 어려움	15
1. 1964년 5월 2일자 메모	15
2. 1965년 선교 소식지 쪽지	18
3. 1971년 자필 복사본 그리스도의 교회 주소록	21
제3장 전쟁 전후 초기사역	31
1. 전쟁 전 신학교	31
제4장 한국 성서 신학교 설립	35
1. 59-61년	35
2. 62-65년	39
3. 65-72년	53
4. 72년 이후	59
제5장 1959-72년 신학교 졸업생	63
제6장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역사>	71
제7장 교회 설립과 후원	83
1. 1950년대	83
2. 1959-72년	88

3. 언급된 교회들의 발전된 모습	117
제8장 보육원 설립과 후원	123
1. 59-72년	123
제9장 기독교 학교 후원	131
1. 59-72년	131

제1장 힐 요한 선교사



JOHN AND JANE HILL
Pioneer missionaries
to Korea, with miss-
ionary daughter Miss
Virginia Hill and
children Danny and
Tina. Adopted Kor-
ean boys are "Line"
and "Doug".
CHRISTIAN MISSION TO
SOUTH KOREA
Taejon, Korea
September 1968

힐 요한(John Hill) 선교사는 테네시 주에 소재한 유서 깊은 존슨 성서대학(현 Johnson University)을 1936년 졸업하였으며, 동년 7월에 목사로 장립 받았다. 1947년에 버틀러 대학교 신과대학에서 문학 석사 학위(M.A)를 받았다. 1963년에는 또 다른 신학대학원으로부터 신학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미시간, 웨스트버지니아, 인디애나 등지에서 목회활동을 했고, 미 육군 군목(대위 예편)으로 미국, 필리핀, 일본에서 복무했다.

힐 요한 선교사는 존슨성서대학 4학년 재학시절 요한 T. 채이스(John T. Chase)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 한국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대학 졸업 후 2년간 온타리오 지방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에 선교사로 나오기 위해서 1938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였다. 1939년에는 에스더 비반즈(Esther Beavans)를 부인으로 맞이하였다. 또 같은 해 미국에서 일본 동경에서 활동했던 W. D.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 1864-1936) 선교사 부부의 일생기(一生記), <타오르는 햇불>을 읽고, 특히 한국 선교에 관련된 부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1924년 이후 한국에는 동경주재 커닝햄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 일하는 한국인 전도인이 있었으나 그 활동이 미미했고, 1935년 3월에 최초로 미국교회에서 파송된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 선교사와 그의 가족이 입국하였으나 가족의 건강문제로 그해 11월에 미국으로 돌아갔으며, 그 후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출신의 토마스 G. 히치(Thomas G. Hitch) 선교사와 그의 가족이 입국하였으나 그들 역시 1939년 힐 요한 선교사 부부가 한국에 도착한 직후 수개월 이내에 출국한 상태였으며, 1936부터 1940년까지 약 4년 동안 한국에서 활동했던 채이스 선교사 부부도 한국을 떠날 채비를 하는 상태여서 외국인 선교사들의 활동이 거의 없던 불모지나 다름없던 때에 입국하여 1972년 6월 은퇴할 때까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선교사가 바로 힐 요한 선교사 가족이다. 특히 힐 선교사는 1959년 이후 대전시 가장동에 한국 성서 신학교(Korea Bible Seminary)를 세워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하였으며, 신학교 안에 선교 본부를 두고 충청도와 전라도에 집중적으로 교회들을 세우고 후원금을 알선한 공이 지대하다.

힐 요한 선교사가 한국에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로 입국하게 된 데는 퇴임을 앞둔 채이스 선교사의 발탁에서 비롯되었다. 채이스 선교사는 한국에 오기 전에 이미 동경의 커닝햄 선교부에서 7년간 일한바 있는 경력자였으며, 서울에 한국인 크리스천 미션(the Korean Christian Mission)을 설립하였다. 그는 1936년부터 1940년까지 일군 모든 선교업적을 힐 요한 선교사에게 인계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힐 요한 선교사는 1940년 가을부터 채이스 선교사가 설립한 목회자 양성소를 개교하였으나 일제 말기의 발악적인 기독교탄압으로 인

해서 수개월도 유지시키지 못한 채, 그해 11월 짐을 꾸려서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서울주재 미국 대사관의 권고를 받아들여 대부분의 다른 미국인들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갔다. 미국인들의 철수 후 일 년 정도 지나서 일본의 진주만 폭격으로 미국이 일본과 전쟁에 휘말리는 불행한 일이 발생되었다.

힐 요한 선교사는 1948년 2월 18일에 한국으로 되돌아왔고, 서울 연지동에 살면서 1949년 3월 15일 서울성서신학교(Korea Bible Seminary)를 개교하여 본격적으로 목회자 양성에 들어갔으나 불행히도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갑작스런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일본으로 피난하였다. 일본에 머무는 일 년여 동안 힐 요한 선교사는 한국어 공부에 주력하였다. 그해 11월에 한국에 돌아와 5주간 머무는 동안 서울 장충동의 임대건물에서 신학교를 개교하였으나 전쟁의 악화로 그해 12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다. 다음 해인 1951년 7월 3일 한국에 돌아온 힐 요한 선교사는 서울 송월동에서 1951년 8월 4일 전쟁고아들을 돌보는 크리스천 미션 고아원을 시작하였고, 이어서 인천과 대전 판암동 그리고 대구에 각각 고아원 설립을 도왔고 후원하였다.

그 후 힐 요한 선교사는 가정문제로 1955년 한국을 떠났다가 제인 키넬트 선교사와 재혼하고 1959년 여름에 돌아왔다. 힐 선교사와 결혼한 제인은 중국, 범마, 일본을 거쳐 한국에서 활동하다가 1955년 귀국한 미혼여성 선교사였다. 한국에 돌아온 힐 요한 선교사는 서울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대전시 가장동에 한국성서신학교와 한국인 크리스천 미션을 세워 1972년 6월까지 10여년 넘게 교장으로 봉직하였다.

이밖에도 대전시 가장동에 버지니아 고아원을 설립하였으며, 1959년 이후 세 곳의 고아원들, 곧 부산의 성광원, 논산(연무)의 에덴보육원, 인천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에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보냈다. 또 1951년부터 1955년까지 서울과 인천과 대전(가장동과 판암동)과 대구(배성보육원)에 각각 고아원 세우는 일을 도왔거나 운영하였고, 1959년부터 1972년까지 인천을 제외한 다른 네 곳의 고아원 설립을 도왔거나 운영하였다.

월 요한 선교사는 1939년에 시작한 파란만장한 한국에서의 대역사를 마치고, 1972년 6월에 은퇴하였으며, 귀국 후에도 소천하실 때까지 미자립 교회들을 후원하였으며, 한국교회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했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산 증인이자 역사였다.

Dec. 7th, 1991 Annual Board Meeting of the Christian Mission to the Rep. of Korea

The roll was called at 6 p.m. (CST) by John J. Hill, and those present were: Mr. Norma Thomas, Mrs. Virginia Bendure, Bruce Hill, Mrs. Louise Allen, David Warner; (absentees were: Samuel Kim, He Young Kim, Carl Lazzareschi, and Loretta Warner).

The opening prayer was given by Norma Thomas.

Thank you to each of you for giving up a whole evening to be in this meeting. As you know, we are required to hold an official board meeting at least once a year, in order to keep our tax-exempt status for the benefit of tax-exempt gifts of all who contribute. And thank you for your gifts and prayers for the Korean work! We appreciate all the churches, Bible classes, and individuals who, by your help, have kept this work going! And of course the GREATEST PRAYER goes to our Heavenly Father! And we also need to thank the Korean preachers, the orphanage staff members, and especially our hard-working and capable forwarding agent, Mrs. Norma Thomas; and our Korean agent and preacher, Brother Il Seung Ahn; and the Gorden Pattens, in Seoul, Korea, for "hanging in there", though the going has been very tough for them. (Today's letter from them shows a little improvement in their income, and we thank God for that, and pray for much greater blessings).

The minutes of last year's meeting of Dec. 8th were read and approved.

Financial Report for a year, Dec. 7, 1990, to Dec. 7th, 1991:

Funds on hand Dec. 7, 1990.....	\$3261.25	<u>Itemized Expenditures:</u>	
Received during said year.....	\$172.56	Korean preacher aid.....	\$7014.00
Total to account for... 12,433.81		To two orphanages.....	616.00
Total expenditures in said 12 months, \$5,841.81		To the Pattens.....	130.00
Balance on hand Dec. 7, 1991....	3,524.30	Bank fees.....	20.00
		Postal fees, registrations,	52.50
		Newsletters Printed.....	200.65
		Stamps.....	40.20
		Printed envelopes.....	46.58
		Annual telephone conference	
		call of Dec. 8, 1990....	47.24
		Wash. State filing fee, '91,	5.00
		Name labels at A.R.....	2.14
		Designated to Russian trip,	135.00
		TOTAL EXPENDITURES.....	\$509.51

Progress Report for the Korean churches, etc.

One-year report, for the last half of '90 and first half of '91:

We were aiding 13 Korean preachers and churches in 1990; 12 preachers in the first half of 1991; and now just 11 churches each month. To Brother Il Seung Ahn, the preacher at the San Kwang Church of Christ (instrumental), who is also our mission agent in Korea, we pay a salary of \$170. a month, a very small salary for Koreans these days. For the other ten churches, we give only aid money each month, ranging from \$50. to \$40. to \$30. per month.

The one-year combined report for the 13 churches helped the last half of 1990 and first half of 1991, shows a total of 335 members

92 newcomers

43 baptisms

Total of smaller Bible School pupils.....700

Total of Jr. and Sr. H.S. students.....356

A motion was made and seconded, and a vote taken, electing Mrs. Louise Allen, of the church at Bladensburg, Ohio, to our board (unanimously)

An election of officers took place, as follows: John J. Hill, Pres.; David Warner, Vice-president; Julia Mackley, Secretary; and Mrs. Norma Thomas, Treasurer and Forwarding Agent.

John J. Hill reported on a very successful and gratifying trip to Russia the past Sept. 10-18th, thanking all who helped make it possible. By the help of offerings already taken, by preachers (150), in Korea last August, and by Gordon Pattens' Korean board members, John hopes and prays that he can go to Moscow again next May, possibly to stay and teach and evangelize for four or five weeks.

"Christmas and New Year's Greetings to you all! Thank you again; Please keep helping! And may God bless us all, and the Korean workers! Bruce Hill gave the closing prayer."

1991년 12월 7일자 한국 크리스천 미션 이사회 회의록

힐 요한 선교사는 본국에 돌아간 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을 돕고 있었음을 그가 남긴 몇 장의 카본카피(cc.: 타자기에 두 장의 용지와 그 사이에 먹지를 넣어 복사본을 만든 것)와 1991년 12월 7일자 한국 크리스천 미션 이사회 회의록(사진)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

남겨진 카본카피에 의하면, 1978년 5월과 7월에는 밥 워릭(Bob and Joyce Warrick) 선교사 부부 앞으로 편지와 돈이 송금되었고, 1978년 9월에는 노봉욱 장로, 1982년 1월에는 조 가맨(Joe R. Garman) 선교사 그리고 1989년 10월에는 안일승 목사 앞으로 힐 요한 선교사의 편지와 돈이 송금되었다.

1991년 12월 7일자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회는 일 년에 한차례 12월 7일경에 있었고, 이사들의 이름과 회의내용을 볼 수 있다. 재정보고에 따르면, 1990년 이월잔액이 3,261불 25센트였고, 1991년 수입이 9,172불 56센트였으며, 지출이 8,509불 51센트였다. 1990년에는 2곳의 보육원과 13명의 목회자와 교회들을 도왔으나, 1991년의 전반기 6개월은 12교회, 후반기 6개월은 11개 교회를 도왔다. 도움을 준 액수는 목회자의 경우 매월 50불에서 30불까지였다. 삼광교회 안일승 목사가 적은 액수의 급여를 받고 대리인의 역할을 여러 해 동안 수행하였다.

힐 요한 선교사는 2009년 11월 4일 오후 4시 58분 96세로 소천하시었다.

2011년 11월 19일 추모 2주기를 맞이하여 유품(사진첩 2개와 다수의 슬라이드 사진, 네거티브 필름, 소수의 선교서신 복사본)이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 산하 한성 신학원에 전달되었다.



2007년 1월 25일 <할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 출판에 즈음하여 노봉욱 장로의 초청으로 원로들이 자리를 같이 하였다. 좌측부터 노봉욱 장로(에덴 보육원 설립자), 심영진 목사(현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개척자), 김치연 목사(대전교도소 교무과장 역임). 이들은 1959년 이후 할 요한 선교사와 긴밀하게 동역한 인물들이다. 심영진 목사와 김치연 목사는 한국 성서 신학교에서 다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다.

제2장 모금의 어려움

1. 1964년 5월 2일자로 미국의 대리인인 드바(De Bar)씨에게 소식지 제작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냈다. 필시 사진들을 첨부하였을 것이다.

1) 대전 유천동 교회건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300불이 즉시 필요하다. (충남 대덕군 유천면 도마리 소재, 현재의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함. 63년 9월경에 시멘 블록과 스테트로 40평 교회를 신축하고 있었음. 이때부터 도마기독지교회로 불림. 사진제공: 힐 요한 선교사, 1964년 8월 26일 촬영)



- 2) 섬에 보낼 신약성경, 전도지, 복음서, 연필 등이 필요하다.
- 3) 내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3명의 남성이 침례를 받았고, 2명의 여성 신학생들(이영선, 하봉례)이 가서 설교하고 있다.
- 4) 최요한 목사는 성공적인 부흥목사이며, 많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부흥집회들을 인도하는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담임자이다.
- 5) 마명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있었던 결혼식과 신혼부부를 소개하였다.
- 6) 성공적인 시골 교회로써 마명리 그리스도의 교회당과 성도들을

소개하였다. 힐 요한 선교사는 64년 4월에 그곳을 방문하여 설교하였고, 6명에게 침례를 베풀었으며, 결혼식에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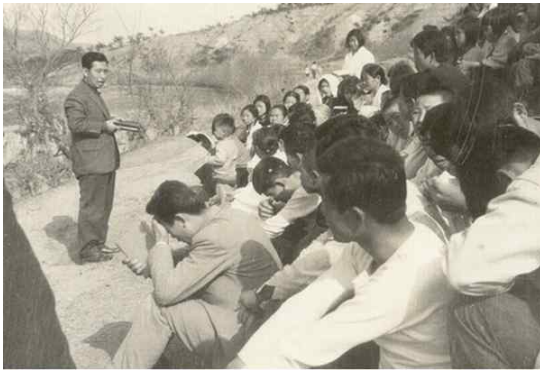
7) 목포 인근의 압해도를 방문하여 순복음 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교회에서 3일간 설교하였다. 안방이 비좁아 마당에 명석을 깔고 예배를 드렸다. 힐 요한 선교사는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 참고로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는 1953년 충남 대덕군 유천면 도마리 309번지 유천면장 손기섭씨 가정에서 시작되었으며, 성도 9명이 창립예배를 드렸고, 1954년 4월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 천막교회를 세웠다(사진제공: 오재건 장로).



1958년 8월에 흙벽돌로 20평 교회를 신축하고 교회명칭을 성화교회로 하였다. 한국 성서 신학교가 1959년에 시작된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다(사진제공: 오재건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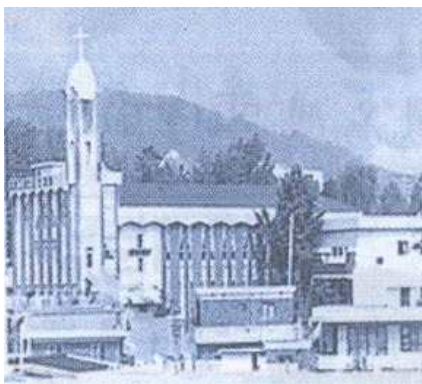


60년대 중반의 도마기독지교회의 야외예배와 67년 4월에 모인 여성 집회의 모습이다. 외국인 여성 Mary Harding, Worth and Elizabeth. 그리고 Jane and Virginia Hill도 함께 참석하였다. (사진제공: 힐 선교사)



1963년 9월에 시멘 블록과 스테트로 40평 교회를 신축하고, 교회 명칭을 도마기독지교회로 하였다. (사진제공: 오재건 장로).

그리고 1975년 12월 4일에 연화 벽돌로 91평 교회를 신축하고 교



회명칭을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로 변경하였다.

2. 사진첩에서 발견된 1965년 선교 소식지(Newsletter) 쪽지에 의하면, 모금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보여준다.

한국에 돌아가는데 필요한 경비 3,500불 가운데서 석 달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모금된 돈이 불과 5불에 불과하다면서 2,500만 한국의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필요한 가전도구들을 대전에 실어 보낼 수 있을지를 소식지를 받아보는 이들에게 묻고 있다. 아래의 글은 1965년 재입국을 앞둔 상황에서 모금이 얼마나 힘겹고 눈물겨운 싸움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월 요한 선교사는 이 험난한 가시밭길을 한국인과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걸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난관들

우리가 한국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대가족과 짐 가방을 서부 해안에 끌어 옮길 수 있겠습니까? 온수기, 세탁기, 건조기, 요리용 스토브를 한국 대전까지 실어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 돌아가기 위한 기금이 겨우 5불밖에 모금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3,495불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야.” 그러나 우리는 이 소식지를 읽는 모든 이들로부터 신속한 응답이 필요합니다. 모든 분들, 예, 모든 분들이요. 우리는 기꺼이 여러분이 계신 지역에 방문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이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열린** 문을 통해서 - 그리스도를 위해서 찾아가야 할 2,500만 명이 넘는 영혼들이 사는 한 작은 나라 - 한국에 펼쳐놓은 우리의 끝내지 못한 대사업으로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꼭 우리들을 도와주십시오.

동시에 우리는 이들 기금들을 모금하며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의 **한국 성서 신학교**를 보존하여 운영하고 복음 전도자 양성을 위해서 한 달에 두 번씩 한국에 계속해서 기금을 보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굶주리고 있는 많은 한국인 목회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계속해서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연약한 한국의 교회들을 도와서, 그래서 교회들이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네 개의 기독교중학교들과 맹아어린이학교를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학교 신축건물을 끝낼 수 있겠습니까?(위의 사진: 3분의 1의 공정을 보인 신축건물) 그것을 끝내고 설비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고작 9,500불입니다. '옛 마귀'는 말하기를, "안 돼. 넌 그것을 할 수 없어. 넌 결코 한국에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가 옳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가 옳지 않았다는 것을 1959년에 입증하였고, 또 다시 1965년에 입증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우리의 독자들과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서명) 존(John).

SEVERAL VERY TOUGH JOBS NOW FACE US

Can we make it back to Korea? Can we haul our big family and baggage to the West Coast? Can we ship a water heater, a washer, a dryer and a cooking stove all the way to Taejeon, Korea? FIVE DOLLARS only has been received for the RETURN TO KOREA FUND. That leaves about \$3,495 yet to come, with barely THREE months left.

Our faith says, "YES, GOD WILL PROVIDE." But, we need a quick response from everyone who reads this; EVERY ONE, YES, EVERY ONE. We are willing to go in your place (or will you come over and help us?), So, please help us step through this OPEN door to our great unfinished task in Korea -- a little country with over 25,000,000 souls to be reached for Christ.



AT THE SAME TIME WE RAISE THESE FUNDS AND PREPARE TO GO BACK

- can we also continue to send funds to Korea twice a month to keep our KOREA BIBLE SEMINARY in operation, training preachers of the Gospel? Can we continue aiding many starving Korean preachers and their families? Can we help the many weak Korean churches, so they will not 'fold up'? Can we assist the four Christian Jr. Hl's. and the school for blind children?

CAN WE FINISH THE NEW SEMINARY BUILDING (one-third completed above)? Only \$9,500 are needed to finish and furnish it. The 'Old Devil' says, "No, you can't do it. You will never get back to Korea." Help us prove he is wrong! With God's help, we proved him wrong in 1959 and again in 1965. With our readers and 'Prayer Warriors' on God's side, we must EXPECT to win. We must say with Paul, "We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ich strengtheneth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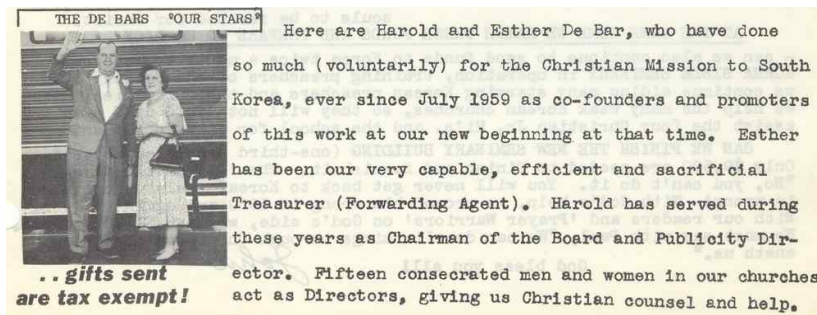
God bless you all!

John

사진첩에서 발견된 1965년 선교서신(Newsletter) 쪽지 뒷면에는 1959년 힐 요한, 힐 제인 선교사부부가 한국에 나와 대전에 정착할 시점부터 힐 선교사 부부를 미국 대리인들로서 자원하여 도운 해롤드 드바르, 에스더 드바르(Harold and Esther De Bar) 부부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스타’ 드바르 부부

해롤드와 에스더 드바르 부부입니다. 그들은 1959년 7월 이후로 우리가 새로 시작한 때인 그 당시 이 사역의 공동 설립자들이요 발기인들로서 남한 크리스천 미션(Christian Mission to South Korea)을 위해 (자원하여)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에스더는 우리의 매우 능력 있고, 능률적이며, 헌신적인 재정담당자(발송 대리인)이었습니다. 해롤드는 그동안 선교이사회 회장과 홍보 담당자로서 섬겨오셨습니다. 우리의 교회들에서 15명의 남녀 성별된 분들이 이사들로서 활동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조언과 도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보내진 기부금은 세금감면이 됩니다.>



3. 사진첩에서 발견된 1971년 2월 18일자에 작성된 자필 복사본 그리스도의 교회 주소록

- List of Korean Churches (Feb. 18, 1971)
1. Chun Ja, Chun Poek, 구 압동 728의156 ✓
Ch of Ch., Choi Yong Ho.
 2. Kim Sang Sik, Seoul, Westgate Ku, 여촌동, ✓
산 42의2, Yuk Kon Ch of Ch., Kim Sang Sik.
 3. Seoul, Westgate Ku, 갈현동 산 53, ✓
Kil Hyun Ch of Ch.,
 4. Seoul, 종로구, 명륜동 4가 85의4, ✓
대 '학' Ch of Ch.,
 5. Seoul, 성북구, 삼선동 1가 274, ✓
돈 암 Ch of Ch., Min Hong Ki, "목사".
 6. Seoul, 용산구, 효창동 5의198, ✓
중앙 Ch of Ch.,
 7. Seoul, 마포구, 대흥동 18, ✓
신촌 Ch of Ch.,
 8. Seoul, Westgate Ku, 홍제동 299, ✓
홍제동 Ch of Ch., 조충연 목사
 9. Seoul (150-01) 영등포구, 외발산동 197의3, ✓
광명 Ch of Ch.

- Korean churches (continued) Feb '71
- Seoul, ~~종로구~~ 필운동 289, ✓
필운동 대의대,
- Seoul, (140) 용산구, 도원동 산 10, ✓
도원동 대의대,
- Chulla nam Do (572-10),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대의대, ✓
- hun nam, (570-61), 해남군 옥천면 ✓
화당리 대의대,
- hun nam, (570-27), 영암군 학산면 ✓
상월리 대의대, Choi Ee Sun, minister
- hun nam, (570-56) 가진군 군동면 ✓
삼신리, 연화동 대의대, —
- hun nam (500), 광주시. 학익동 ✓
Ch of Chr, Kim Dong yul (?) minister
- hun nam (580), 목포시, 대안도 11, ✓
목포 대의대, Choi Yo Han 목사
- hun nam, (580-34) 진도군 군내면 대사리

19. Chun Nam (570-27), 영암군, 학산면,
포항리, 대의대, 이순애님

20. Chun Nam (570-62), 해남군, 화산면,
삼호리, 삼호 대의대, 유덕례

21. Chun Nam (500) 광주시, 금동 46번지,
대의대, 김동열 "목사"

22. Chun Nam (570) 강진군, 기룡리 103, ✓
대의대, _____

23. Chun Nam (570-57) 강진군 작천면 ✓
중앙리, 작천 대의대, _____

24. Chun Nam (542-12) 여천군, 화양면
장동, 대의대, _____

25. Chun Nam⁽⁵⁷⁰⁻⁶¹⁾,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
대의대, _____

26. Chun Nam (570-61) 해남군 옥천면 ✓
동리, 대의대, _____

27. Chun Nam (573-15) 해남군 계곡면 예수리
안산리, 대의대

Chun Nam (580-81) 무안군 이로면 ✓
외 달리 대역대, _____

Chun Nam (580) 목포 시고하도 ✓
고하 대역대, _____

Chun Nam (542) 여천군 돌산면 ✓
우두리 세구리, 백초 대역대,
장휘명 전도사님

Chun Nam (570-62) 해남군 화산면 ✓
삼호리, 삼호 대역대, 김상신 전도사

Chun Nam (570-50) 강진읍 서성리 103, ✓
강진읍 대역대, _____

Chun Nam (570-62) 해남군 화산면 ✓
파명리, 파명 대역대, 김종현 장노님

Chun Nam (570-62) 해남군 화산면 ✓
사포리 대역대, 명연재 전도사

Chun Nam (570-63) 해남군 현산면 ✓
상구신리, 구신리 대역대, 김일순 목사

36. Chun Nam (572-14) 함평군 손불면 ✓
공사리, 대의대
37. Chun Nam (580-21) 신안군 압해면 ✓
매화리, 매화 대의대
38. Chun Nam (573-16) 해남군, 송지면 ✓
매화리, 대의대, 김형주 전도사
39. Choong Nam (360-22) 논산군, 양촌면
산직리, 신정 대의대, 이백호 전도사
40. Choong Nam (360-21) 논산군 부적면 ✓
탑골리, 금성 대의대, 함평 덕목사
41. Choong Nam (330-70) 부령군 주포면 ✓
파강리, 구슬 대의대, 최태시 전도사
42. Choong Nam (330-22) 천원군, 병천면 ✓
병천리, 병천 대의대, 김순철 전도사
43. Choong Nam (360-21) 논산군 부적면 ✓
충곡리, 충곡 대의대
44. Choong Nam (330-66) 홍성군 금마면
자서리, 자서 대의대, 기계주 전도사

15. Choong Nam, (300) 대전시, 선화동 2구
선화동 대영대, 김치연 목사 ✓
16. Choong Nam (300) 대전시, 판암동 476,
대영대, 고재운 목사
17. Choong Nam, (300-01) 대전시, 도마동,
도마대 대영대, 심영진 목사 ✓
18. Choong Nam, (300) 대전시, 신흥동 161외33
신흥동 대영대, 김현경 목사
19. Choong Nam (300-01) 대전시, 산성동 450.
대영대, 임병선 목사
20. Choong Nam (300) 대전시, 가양동,
가양동 대영대 (기독교회) 김재술 ✓
21. Choong Nam (300-31) 대덕군 유성면
죽동리 대영대 김칠성 전도사 ✓
22. Choong Nam (300-32) 대덕군 탄동면
내동리, 대영대, 평철재 전도사 ✓
23. Choong Nam (300) 대전시 석교동
대영대, 박옥채 전도사 ✓

54. Choong Nam, (300-00) 대전시 태사동 —
Ch of Ch., Ee Sa Con, minister.

55. Choong Pook, (380-11) 중원군 동양면
조동리 Ch of Ch., Cho Kyeu Suk, Mi.

56. Choong Pook (311-25) 괴산군 불정면
영천리, 반능 대의대, 김정만 목사

57. Choong Pook (320-86)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대의대, 이규승 전도사

58. Choong Pook (370-26) 보은군 산외면
이식리 대의대, 고광석 (고윤식) 목사

59. Choong Pook (380-16) 중원군 소태면
덕은리, 덕은 대의대, 조 —

60. Choong Pook (311-25) 괴산군 불정면[✓]
과전리, 영춘 대의대, —

61. Choong Pook (311-26), 괴산군 소수면 수
수리 대의대, 이안식 전도사 (목사)

62. Choong Pook (380-16) 중원군 소태면[✓]
덕은리, 덕은 (초기암) 대의대, —

choong Pook (380-16) 중원군 소태면 ✓
북탄리, 대의대

choong Pook (320-73) 청원군 북이면 ✓
송정리, 송정 대의대, 치전도사

choong Pook (320-71) 청원군 옥산면, 사정리, ✓
대의대, _____

choong Pook (320-77) 주원군, 노은면, ✓
수용리, 노은 대의대, _____

choong Pook (310-22) 청원군 강서면, ✓
문암리, 대의대, 안일승목사

choong Pook (310-11) 청원군 남이면 ✓
양촌 대의대, 감은성목사

choong Pook (310-14) 청원군 남일면 ✓
쌍서리, 쌍서리 대의대, 함태영목사.
(창현)

~~choong Nam (320-12) 해남군 송치면, ✓~~
~~대화리 대의대, 김형주전도사~~
연기군, 남면, 월산리, 황골
대의대, _____

hoory Nam (300-00) 대전시 대화동 ✓
 ch of ch, 김동식 전도사

hoory Nam (331-14) 마산군 은봉면, ✓
 산동리, ch of ch

hoory Nam (360-18) 논산군, 연무읍, 동사 3동
 880, ch of ch

hoory Nam (300-87) 대덕군 북면, 석봉리, ✓
 신탄진, ch of ch, 김용순 목사

hun Pook (550-11) 김제군 백산면 조종리, ✓
 태매, 대산 ch of ch, 라명환 전도사
 (see #89)

yung Pook (660-40) 영양군 영양면, ✓
 서북동, 영양 ch of ch, 오현팔 목사

yung Pook (660-15) 안동군 풍산면, ✓
 죽전동, ch of ch, 송영희 전도사

yung Pook (660-15) 안동군 풍산면, ✓
 상리, 안동북음중학교 양정식 목사

usan si (600) 중앙 Y.M.C.A. 내, ✓

80. Pusan 시 (601) 부산진구, 교성 ✓
개척관내, 김봉섭목사님

81. Kang Won Do (210) 강릉시, 목천동, 사서함호

82. Kang Won Do (210) 강릉시, 병산리, ✓
병산 대영대, _____

83. Kang Won Do (210-16) 평주군, 주문진읍, 교항리,
주문진 대영대, _____

84. Kyunggi Do (170-73) 용인군, 기흥면, 신갈리,
신갈 대영대, 김재업목사님

85. Kyunggi Do (171) 시흥군, 안양읍, 대천동 706 ✓
안양 대영대, 장주열목사

86. Kyung Do (160-70) 인천시, 부평동 655, ✓
부평 대영대, 설하운전도사

87. Kyunggi Do (172-15) 이천군, 장호원읍, ✓
이화리, 자호원 (항정) 대영대,
안병호 전도사

88. Kyunggi Do (160) 이천시, 수의동 231,
수의 대영대, 김여시목사

address of post-helper at Jek San ch, near Jui

89. Chun Pook, (550-11) 김제군, 공덕면공덕리
금아 (대산교회), 김일수 (a male deacon,
-post helper)
(na myung Wan is minister)

제3장 전쟁 전후 초기사역

1. 전쟁 전 신학교

힐 요한 선교사는 1940년 가을부터 채이스 선교사가 설립한 목회자 양성소를 개교하였으나 일제 말기의 발악적인 기독교탄압으로 인해서 수개월도 유지시키지 못한 채, 그해 11월 짐을 꾸려서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서울주재 미국 대사관의 권고를 받아들여 대부분의 다른 미국인들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갔다. 미국인들의 철수 후 일 년 정도 지나서 일본의 진주만 폭격으로 미국이 일본과 전쟁에 휘말리는 불행한 일이 발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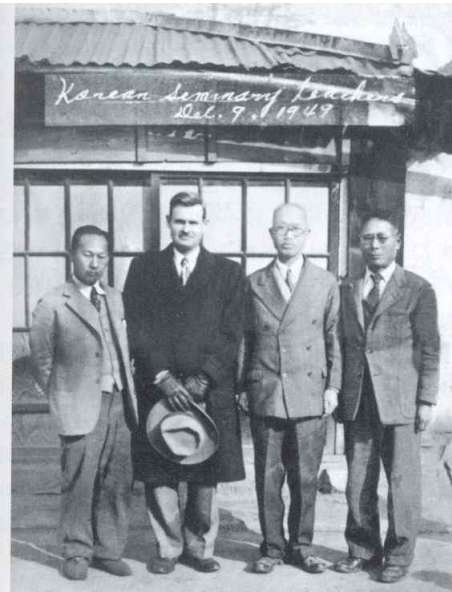


구 송월동 선교부 건물

힐 요한(John Hill) 선교사는 1948년 2월 18일에 한국으로 되돌아왔고, 서울 연지동에 살면서 1949년 3월 15일 서울 성서 신학교 (Korea Bible Seminary)를 개교하여 본격적으로 목회자 양성에 들어갔으나 불행히도 1950년 6월 25

일 북한 공산군의 갑작스런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일본으로 피난하였다. 일본에 머무는 일 년여 동안 힐 요한 선교사는 한국어 공부에 주력하였다. 그해 11월에 한국에 돌아와 5주간 머무는 동안 서울 장충동의 임대건물에서 신학교를 개교하였으나 전쟁의 악화로 그해 12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다. 다음 해인 1951년 7월 3일 한국에 돌아온 힐 요한 선교사는 서울 송월동에서 1951년 8월 4일 전쟁고아

들을 돌보는 크리스천 미션 보육원을 시작하였고, 이어서 인천과 대전 판암동 그리고 대구에 각각 보육원 설립을 도왔고 후원하였다.



한국동란 직전인 1949년 말에 성낙소 목사가 시무하는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개교한 한국 기독교 성서 신학교 교수들과 학생들이 함께한 사진이다. (좌측 사진출처: 노봉욱 장로 편저, <월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

한국 성서 신학교 초창기 교수 사진
좌로부터 <성낙소 목사, Hill 선교사, 최상현 목사, 백낙중 목사>



(사진출처: 최윤권 목사 저,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



1952년 크리스천 미션 보육원(사진제공: 김종기 목사)
공부 시간, 성수경 목사(왼쪽)와 힐 요한 선교사(오른쪽)



1952년 크리스천 미션 보육원(사진제공: 김종기 목사)
식사 시간, 성수경 목사(왼쪽)와 힐 요한 선교사(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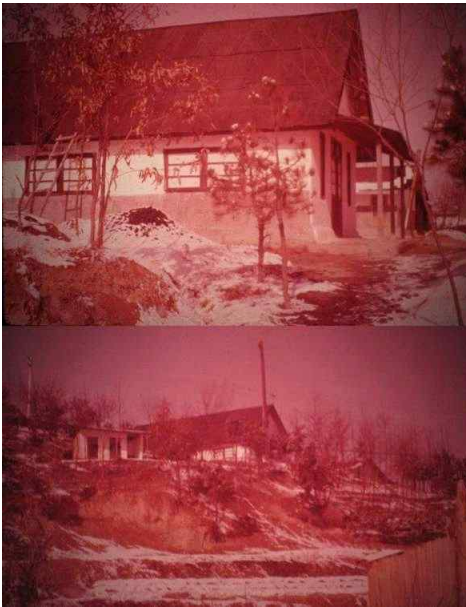
서울 성서 신학교 제1회 졸업식 1955년 3월 3일 (사진제공: LA 김현숙)

앞줄 왼쪽부터 이신, 김동렬, 존 힐, 김동수(통역)

뒷줄 오른쪽 끝 김현숙, 가운데 줄 왼쪽에서 세 번째 함태영, 그밖에 최병식, 김태수, 송창현, 조국형, 성수경, 정희건, 이종윤, 김봉석, 유현성, 변승택, 이흥미

제4장 한국 성서 신학교 설립

1. 59-61년



최초의 신학교(도마리 성화교회)
(사진제공: 힐 선교사, 슬라이드)

1955년에 한국을 떠난 힐 요한 선교사는 1959년 여름에 재혼한 힐 제인과 거의 두 살이 된 아기 대니를 데리고 한국에 돌아왔다. 두 달 동안 부산에서 알렉스 빌즈 가족과 함께 지내다가 대전으로 옮겨왔다. 알렉스 빌즈(Alex V. Bills) 가족은 1956년부터 부산에서 기독교 방송 선교부를 창립하여 전파선교를 감당하면서 방송국설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던 때였다.

대전에 정착한 힐 요한 선교사 가족은 1959년 12월 1일 대전 성서 신학교를 창립하였

고, 일 년 가량 후에 한국 성서 신학교로 이름을 바꿨다. 당시로써는 한국 성서 신학교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유일한 신학교였다고 한다. 서울 성서 신학교가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힐 요한 선교사는 이때로부터 5년 후 안식년을 보내기 전까지 생애 중 가장 긴 기간이었다고 회고하였다.

대전 성서 신학교는 충남 대덕구 유천면 도마리 성화교회(담임 심영진), 지금의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시작되었고, 이신 목사가 부

산에서 강의하러 오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학교를 선화 그리스도의 교회 (담임 고광석)로 옮겼다가 61년에 가장동으로 옮겼다.



최초의 신학교 교수 및 학생들 (1959-61년 겨울, 대덕군 유천면 도마리 심영진 목사 시무 성화 교회당 앞에서, 현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앞줄 왼쪽부터 힐 제인, 힐 요한, 김은석(63년 1월 소천), 심영진, 김태수, 뒷줄 왼쪽부터 오재건, 고재윤, 뒷줄 오른쪽부터 고광석, 김찬영<사진제공: 오재건 장로>



우측 1번째 심영진 목사의 사모, 3번째 제인, 7번째 힐 요한 선교사
그리고 남녀 학생들(사진제공: 힐 선교사 슬라이드)



두 번째 신학교 강의실이었던 선화 그리스도의 교회(대전시 선화동 2구 315번지. 김은석 목사가 구호물품의 잉여물자를 알뜰히 모아 팔아서 마련한 땅에 건물을 짓고 시작한 교회였다. 6.25사건이 터지기 이전의 일이었다. 사진제공: 이선길 목사)



세 번째 신학교 부지인 가장동에 세워진 선교부 천막교회
(61년, 사진제공 힐 선교사, 슬라이드)

가장동 시절의 한국 성서 신학교 교수들로는 최요열, 이은수, 버지니아 힐, 딕 래시, 이신(혹은 이만수), 김이영(후에 김찬영으로 개명), 소교민, 김태수, 심영진, 김은석, 김치연, 김희영, 임춘봉, 박태규, 최용호, 김성철, 천명화, 프레드 호프만, 힐 제인 그리고 힐 요한(1959-1971년까지 교장 역임) 등이었다. 이들 교수들의 교육을 받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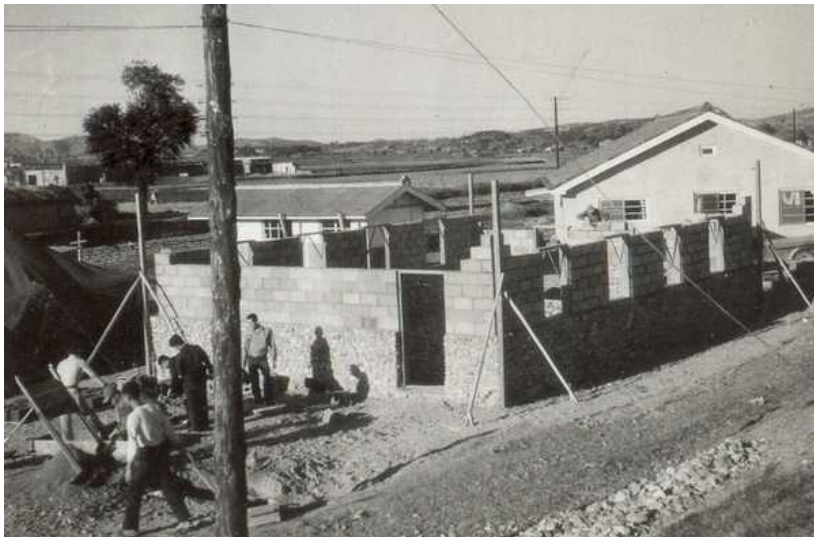
졸업생이 90명 이상이며, 그들 중 많은 수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목회자로 섬겼다.



61년에 근로학생들이 지은 신학교 기숙사(70년대 초까지 사용됨)

2. 62-65년

61년경에 힐 요한 선교사의 2층 주택과 선교사 가족을 위한 단층 주택 및 신학교 기숙사가 지어진 다음, 62년에 가장동 그리스도의 교회당이 신학교 강의실 겸용으로 지어졌다. 시멘트 블록을 쌓고 있는 건물이 가장동 교회당이고, 그 앞쪽의 완공된 건물이 선교사 가



죽을 위한 단층 주택이다. 졸업생들이 단체 사진들을 찍었던 장소이기도 하다. 전주(電柱)와 근로 학생들이 작업하고 있는 곳은 수년 후 도로로 편입되었다. (사진제공: 힐 선교사)



위의 사진이 가장동 그리스도의 교회당 겸 초창기 강의실이었다. 시멘트 미장이 되기 이전 사진이며, 십자가 아래 교회 현판과 신학교 현판을 매달았다. (사진제공: 힐 선교사)



화가였던 이신 목사가 도안한 현판 (제공: 최용호 목사)



시멘트 미장이 채끝나지도 않은 상태의 가장동 그리스도의 교회당에서 신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62-63년경의 장면이다. 비록 장소가 누추하고, 책상은 열악하며, 좁고 덥고 배고프던 시절이었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만큼은 뜨겁던 때였다.

아래 사진은 가장동 교회당 뒤편에 덧대어 만든 교실 겸 식당에서 임춘봉 교수의 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이다. (힐 선교사, 슬라이드)





마루를 걷어내고 시멘트 바닥에 강의자 책상을 배치한 가장동 교회당에서 학생들이 통역강의를 듣는 모습이다.



61년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사용된 기숙사로써 아직 지붕에 기와를 올리기 전의 모습이다. 우물 앞 제방 밑의 밭과 기숙사 뒤편 초가집과 나무들이 있는 곳과 좌측의 넓은 토지는 모두 학교 운동장과 신축건물들이 들어서기 이전의 모습이다. (사진: 힐 선교사의 슬라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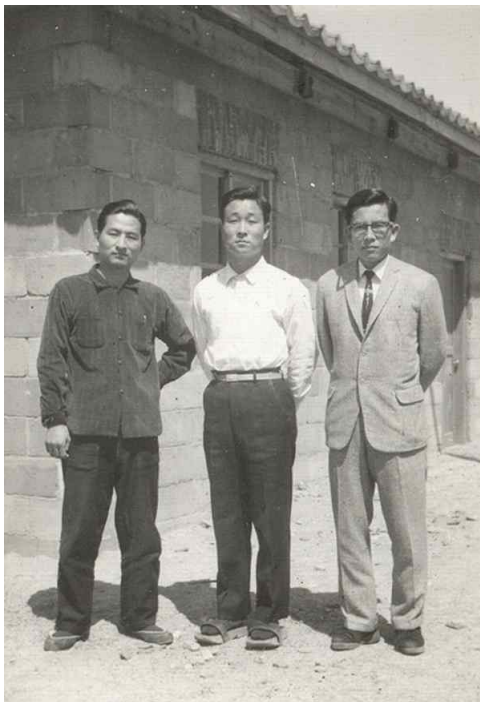
몇 년 후 도로로 편입된 가장동 교회당의 뒤편에서 찍은 62년경 사진이다. 앞줄 좌측부터 김찬영, 힐 요한, 이신, 최요열, 뒷줄 우측부터 김경주, 한 사람 건너 조성식, 임홍만, 고재윤, 두 사람 건너 김준배, 두 사람 건너 안일승, 박근혜(마지막), 힐 선교사 뒤에 박병문, 이신 목사 뒤에 남충열, 이신 목사와 최요열 목사 뒤에 남동식, 좌측 가운데 줄 세 번째 조사환(태영). (62년경, 사진제공: 힐 선교사)



가장동 교회당 뒤편에 식당 겸 교실을 만들고 있는 장면이다. 앞줄 좌측에서 세 번째 김인숙, 우측 두 번째 최명순, 가운데 줄 좌측에서 네 번째부터 인원영, 최용호, 신영기, 윤기열, 안일승, 한 사람 건너 김승일, 김성철, 뒷줄 좌측부터 두 번째부터 최금생, 고재윤, 다섯 번째 한옥동, 남충열, 김준배, 한 사람 건너 박옥채(뒷줄 첫 번째).



좌측부터 최용호, 최금생, 한 사람 건너 한옥동, 앞쪽 좌측 김인숙



60년대 초중반. 좌측부터 최용호, 최금생, 박경식. (사진 제공: 힐 선교사)



60년대 초중반. 선교사 주택 뒤편에서. 앞줄 우측부터 2번째 최요열, 이신, 심영진, 힐 요한, 임춘봉, 끝에 박경식, 2번째 줄 3번째 최용호, 6번째 최금생, 9번째 안일승, 3번째 줄 좌측 1번째 천명화, 우측 5번째 조사환, 윤기열. (사진제공: 힐 선교사)



60년대 초중반. 뒤에서 2번째 줄 우측 1번째 김히영, 8번째 최금생, 뒷줄 우측부터 힐 요한, 힐 제인, 조성식, 가운데 천명화. 한 사람 건너 한옥동. (사진제공: 힐 선교사)



앞줄중앙 : 힐선교사, 우측:심영진목사 와 김히영교수
힐선교사, 좌 : 임춘봉목사, 최요열목사
힐선교사 뒤 제인 힐 사모

60년대 초중반경. 첫줄 좌측부터 최요열, 임춘봉, 힐 요한, 심영진, 김히영, 둘째 줄 좌측부터 안일승, 조사환, 힐제인, 뒤줄 좌측부터 고재윤, 인원영.
(사진출처: 노봉욱 장로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



60년대 초중반경. 첫줄 우측부터 힐 요한, 김현숙, 김히영 교수 사모, 최요열, 임명진, 이신, 정인소, 임춘봉, 심영진, 최요한, 둘째 줄 좌측부터 양태윤(빵모자), 박경식, 3번째 최용호, 6번째 한옥동, 끝줄 좌측 남동식, 우측 끝 남충열, 4번째 최금생. (사진제공: 힐 선교사)



필자 : 앞줄중앙 (제인힐)
 앞줄 : 우로부터 이종만목사,
 김현숙집사, 제인힐사모,
 김히영 교수 사모, 최요한 목사
 뒷줄 : 우로부터 힐선교사,
 최요열목사, 임춘봉목사,
 임명진장로, 이신목사, 정인소박사
 왼쪽끝 심영진목사

(사진출처: 노봉욱 장로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



1952년 성낙소 목사의 '신약교회목회학'에서



1961년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수련회(부강교회)에서



앞줄 우측부터 라명환 목사, 심영진 목사, 김히영 교수, 최요한 목사, 힐 선교사, 최요열 목사, 가운데 줄 1번째 최금생 목사, 뒷줄 3번째 이백호 목사, 5번째 최정성 목사. (사진제공: 힐 선교사)



채이스 요한 선교사 신학교 방문 환영 예배



좌측부터 최정성, 최이선
(사진제공: 힐 선교사)



60년대 중반. 뒷줄 좌측부터 앞줄 4번째까지 힐 요한, 천명화, 현정규, 이
홍렬, 임춘봉, 최정성, 뒷줄 우측 1번째 최용호, 4번째 이백호, 이백호, 임
춘봉 사이에 남충열. (사진제공: 힐 선교사)



60년대 중반. 뒷줄 우측부터 한규덕, 박군희, 홍순기, 한 사람 건너 전상희, 최종원, 최세동, 우측 끝 현정규, 앞줄 좌측 3번째 석만영. (사진제공: 힐 선교사)



강의실이었던 가장동 그리스도의 교회당 입구에 선 학생들, 벽면에 교회당 현판아래 신학교 현판이 걸려 있다. (사진제공: 힐 선교사)



60년대 초중반. 첫줄 좌측 하복례, 우측부터 순동식, 안일승, 2번째 줄 우측부터 김승차, 3번째 최금생, 최금생 뒤에 송명희, 뒤줄 우측부터 이은수, 인원영. (사진제공: 힐 선교사)



60년대 중반. 맨 앞에 최정성, 2번째 줄 우측 최이선, 좌측 최세동, 뒷줄 좌측부터 김히영, 심영진, 석만영, 심영진 앞에 최중원, (사진: 힐 선교사)



동문회, 사회자 고재운 목사 (사진제공: 월 선교사)



동문회 임원선출, 사회자 고재운 목사, 칠판서기 이백호 목사
(사진제공: 월 선교사)

3. 65-72년



64-65년경에 이뤄진 가장동 신학교 본관 건축기공식 장면이다(사진 제공: 힐 선교사). 위의 두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기숙사와 선교사 주택 및 교사로 쓰이던 가장동 그리스도의 교회당의 건축이 완료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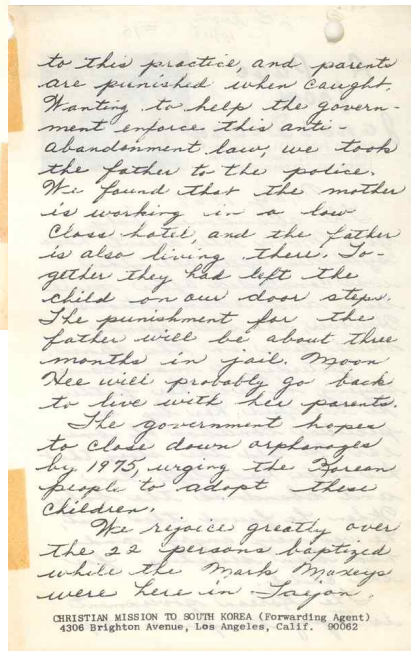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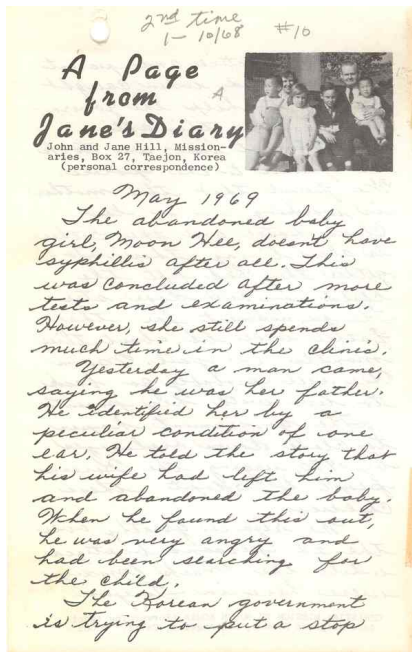
1959년 여름에 한국에 나와 대전에서 사역을 시작한 힐 요한 선교사 가족은 힘겨운 5년을 보낸 후 미국에 돌아가 안식년을 보내고 1965년 한국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면서 선교소식지를 후원자들에게 보냈고, 위의 사진을 실었다. 힐 선교사는 위의 사진이 3분의 1의 건축공정을 마친 상태라고 하였고, 완전히 끝내는데 필요한 경비가 9,500불이라고 적었다. 힐 선교사 내외는 이 건물을 끝내기 위해서 힘겨운 모금전쟁을 펼쳐야 했다.



이 사진은 단층의 건축공정을 끝내고 커튼까지 드리운 채 교사로 사용하고 있던 모습이다. 이 건물의 2층까지가 힐 요한 선교사의 기

도와 노력으로 이뤄진 결과물이다. (사진제공: 힐 선교사)

1969년 봄학기 때 일본 주재 마크 맥시(Mark Pauline and Hope Maxey) 선교사 부부가 한국을 방문하였고, 대전 방문 시(時)에 22명이 침례를 받았다고 제인 힐 선교사는 1969년 5월자 편지의 말미에서 적고 있다. 맥시 선교사는 부산 동서대학교의 이사장 장성만 목사로 하여금 일본과 미국에서 각각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던 잘 알려진 선교사이다. 다음 페이지의 사진들은 제인의 편지와 가장동 채플에서 환영예배를 마치고 촬영한 단체사진이다.





1969년 3월 27일(목요일), 설교: 일본 규슈 주재 맥시 선교사
좌측에 박종서, 힐 요한, 김히영, 최용호, 둘째 줄 우측 6번째 한규덕, 뒷줄
3번째 현정규, 5번째 조자호. (사진제공: 힐 선교사)



1972년 3월 학기를 개강하면서 찍는 단체 사진이다. 힐 요한 선교사의 마지막 학기였다. 좌측 세 번째 줄 첫 번째 이백호 목사, 뒷줄에 하프만 선교사, 그 앞에 현정규 목사, 오른쪽 첫 줄 첫 번째 앉아

있는 사람 곁에 선 사람이 박종서 목사이다. 아래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중앙 상단의 교명을 새기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을 볼 수 있다. (사진제공: 힐 선교사)

1969년에 시작된 본관 2층의 완공을 돕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3층과 우측으로 잇대어 신축된 3층 교사와 신축교사 우측에서 선교관까지 잇대어 지은 별관 3층 교사 그리고 부지확보 등이 70-80년대에 김찬영 목사와 패츄리샤(Patricia) 사모의 기도와 노력으로 이뤄졌다.



이 사진은 1972년 6월 힐 요한 선교사 내외가 한국에서의 선교사역을 완전히 접고 모든 사역을 김찬영 목사 내외에게 위임하고 귀국하기 직전에 촬영한 송별사진이다. 2층의 창밖으로 커튼이 휘날리고 있다. 중앙 상단은 한글로 반달 모양으로 '한국성서신학교'라고 음각(陰刻)하였고, 밑에는 일직선으로 'KOREA BIBLE SEMINARY'라고 새겼다. 신학교의 운영을 맡게 된 김찬영 교장은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득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박정희 정권하에서 10년이 넘도록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비로소 1983년에 4년제 대학령에 준한 각종학교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때 교명을 한성 신학교로 바꿨는데, 서울 노원구에 이미 '한국성서신학교'란 이름으로 4년제 대학령에 준한 각종학교인가를 받은 대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진제공: 힐 선교사)



83년 이후 90년대까지 사용된 동판

교 가

임춘봉 작사
김희영 작곡

$\text{♩} = 90$ Brightly (활발하게)

계 룡 의 푸 른 즐 기 너 른 가 슴 에
 버 드 내 맑 은 물 에 불 의 를 씻 고
 새 갈 의 차 별 이 나 돌 담 을 헐 고

백 제 의 얼 이 서 - 린 목 발 이 있 다
 주 님 의 떡 을 나 - 뉘 한 형 제 되 니
 세 계 로 이 웃 삼 - 아 인 류 를 뭉 처

진 실 과 의 기 앞 에 청 춘 을 바 친 아 - 우리 는 평
 새 로 운 회 개 운 동 개 혁 의 햇 불 아 - 우리 는 진
 전 쟁 의 비 참 에 서 구 원 해 낼 자 아 - 우리 는 복

화 의 수 호 자
 리 의 파 수 군 이 계 녹 스 칼 로 모습 을 쳐 서 영 원 한
 음 의 전 도 자

사 랑 의 씨 이 땅 에 심 자 한 국 은 우 리 의 집 성 서 는 무

기 나 가 자 거 친 들 로 한 성 의 용 사

4. 72년 이후



86년 가장동 한성 신학교 캠퍼스(배구대항)

이 시기에는 김찬영 교장의 열정이 돋보이던 시기로 부지확보와 증축 및 신축이 활발하게 이뤄지던 때이다. 특히 83년 이후로는 증가와 더불어 학생 수가 수백 명에 이르게 되었고, 캠퍼스 이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던 때였다.



1990-2007년 한성 신학교 연산캠퍼스



2008년 이후 연산캠퍼스의 달라진 모습. 학교법인을 한민족으로, 교명을 한민학교로 개명. 2011년 말에 다시 한민문화예술학교 개명을 추진함.



제5장 1959-72년 신학교 졸업생

사진의 연대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팁이 김찬영 목사(한양대 교육학 박사), 이신 목사(밴더빌트대 신학 박사), 김희영 교수의 도미(渡美)시점이다. 김찬영 박사는 1959년 후반기부터 한국 성서 신학교에서 힐 요한 선교사의 통역관으로 일하면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62년 후반에서 63년 초경에 입대하였고, 65년 9월 5일에 도미(渡美)하여 학업을 마치고 70년 11월 15일 귀국하였으며, 이신 박사는 66년 9월에 도미하여 71년 8월에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다. 그리고 김희영 교수는 63년 초부터 71년 8월 12일 음악선교사로 미국에 이민 갈 때까지 힐 요한 선교사의 통역과 음악 교수를 맡았다. 따라서 김찬영 목사가 함께한 사진은 59년 말부터 62년까지이며, 이신 목사가 함께 사진은 65년까지이며, 김희영 교수가 함께한 사진은 63년 이후 70년까지이다.



1962년 신탄진 천막에서 열린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
 앞줄 오른쪽부터 심영진 목사, 최요열 목사(1930년생), 한숙자 사모, 이종만 목사. 뒷줄 오른쪽부터 힐 요한 선교사, 한 사람 건너 임춘봉 목사, 정인소 박사, 성낙소 목사(64년 11월 소천), 이신 박사, 고광석 목사, 장주열 목사(최요열 목사 큰 동서). 소교민 통역 (사진제공: 힐 선교사)



1961년 제1회 12월 12일 졸업식(사진제공: 힐 선교사)

앞줄 좌측부터 이은수, 한 사람 건너 김찬영, 힐 요한, 이신, 최요열, 김영애, 송명희, 가운데 줄 우측부터 최명순, 유정숙, 한 사람 건너 남충열, 한 사람 건너 박태규, 조사환, 임홍만, 김송차, 뒤줄 우측 첫 번째 박병문, 좌측부터 신영기, 최창문, 안일승, 인원영.



1961년 12월 12일 제1회(성서과) 졸업생들
좌측부터 고재윤, 김영애, 윤기열, 힐 요한



1963년 12월경. 좌측부터 임춘봉, 김성철, 최요열, 이은수(본과1회), 이신, 이종만, 임명진, 우측부터 힐 요한, 김히영, 심영진.



1963년 12월경 제4회 졸업생들.
좌측부터 이은수(본과1회), 송명희, 최창운, 신영기



앞줄 우측부터 2번째 최용호, 김히영, 심영진, 이신, 래쉬, 앞줄 좌측에서 2번째 박병문, 3번째 임흥만, 4번째 최요열, 맨 뒷줄 우측부터 6번째 함동진 (제일 검은 머리칼: 사진제공), 셋째 줄 좌측부터 최정성, 4번째 김순철, 우측부터 최금생, 4번째 천명화, 최중원, 둘째 줄 1번째 박문자(맹인). (힐 선교사 안식년)



최요열 목사는 65년 12월 5일자로 부천시 역곡동 소재 새소망 교회(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순복음 새소망 교회)에 부임하였으나 신학교와의 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앞줄 좌측부터 박영자, 유문자, 김치연, 심영진, 이신, 힐 제인, 힐 요한, 최용호, 김히영, 이은수, 둘째 줄 좌측 4번째 천명화, 라명환, 유근희, 김재업, 셋째 줄 2번째 최태시, 7번째 김순철, 우측 끝 김재술, 끝줄 좌측부터 최정성, 한 사람 건너 최중원, 이백호.



앞에서 2번째 줄 좌측부터 최용호, 임춘봉, 김치연, 임명진, 노봉옥, 힐 요한, 힐 제인, 이종만, 최요열, 김히영, 이은수, 둘째 줄 중앙 졸업자 좌측부터 조규석, 고원필, 김경주, 셋째 줄 왼쪽 김성철, 뒤줄 우측 3번째 최중원. (사진: 힐 선교사)



좌측부터 조규석, 고원필, 김경주



앞줄 좌로부터 버지니아 힐, 심영진 목사, 김치연목사, 중앙 힐선교사, 제인힐사모, 래쉬선교사, 임명진장로, 이종만 목사, 최순국목사, 김히영교수, 최용호목사, 최요열목사, 두번째 줄 우:이은수 목사, 옆:김성철목사

둘째 줄 졸업자 좌측부터 송행자, 김영애, 김준배, 이백호.
(사진 출처: 노봉욱 장로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



제10회 6월 졸업기념.

셋째 줄 졸업자 좌측부터 최정성, 박태규, 이덕환, 조오환, 박근화, 유기성.
첫째 줄 좌측 3번째 최종원, 둘째 줄 좌측부터 최용호, 고재윤, 김치연, 심영진, 이종만, 힐 제인, 임명진, 이종만, 최용호, 김히영. (사진제공: 힐 선교사)



68년 7월 12일 제12회 졸업기념. 우측부터 김은미(제11회), 최중원, 석만영, 힐 요한, 김재술, 이용복, 임병선. (사진제공: 힐 선교사)



1971년 제18회 졸업식, 좌측부터 송완현, 김정례, 순동식 목사, 김동식 목사, 뒷줄 좌측부터 딕 래시, 힐 요한, 힐 제인, 김 패추리샤, 김찬영 (사진제공: 힐 선교사)



1971년 제18회 졸업식

졸업자 명단

제1회: 고재운, 윤기열, 김영애

제2회: 김송차, 조사환(태영)

제3회: 안일승, 인원영, 남충열, 유정숙, 최명순

제4회: 신영기, 최창운, 송명희,

제1회: 이은수(본과)

제2회: 최용호(본과)

제5회: 임홍만, 박병문

제7회: 유근희, 최태시, 천명화(목원대 졸업), 유문자, 김재
업, 라명환, 박영자

제8회: 고원필, 김경주, 조규석

제9회: 송행자, 김영애, 이백호, 김준배

제10회: 최정성, 이덕환, 박태규, 조오환, 박근화, 유기성

제11회: 김은미

제12회: 김재술, 석만영, 최중원, 이용복, 임병선

제18회: 송완현, 김정례, 순동식, 김동식

제6장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역사>

글: 존 J. 힐(John J. Hill),
再譯 및 원문 복원: 조동호(1999. 03),
初譯: <세메론> 제7호 편집부(한성신학교, 1972)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를 기록해야 할 필요성을 지난 수년간 느끼고 있었고, 또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파송된 그 어느 선교사보다 한국에 오래 거주했기 때문에, 비록 있어서 좋은 자료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이 일을 지금부터 나는 내 기억에 의존해서 짧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를 기록하고자 합니다. 아마 나중에 좀 더 정확한 교회사를 기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은 필자가 한국인 전도자의 관점에서 보다는 미국 선교사의 한 관점에서 기록한다는 점을 또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필자는 이 교회사에 적어갈 사실들을 언급함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만큼 솔직하게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었을 당시, 아마 1939년이었을 것입니다. 필자는 일본 동경에서 활동했던 W. D. 커닝햄 선교사 부부의 일생기(一生記)를 적은 책, <타오르는 횃불>을 모두 읽었습니다. 그 책은 커닝햄 선교사의 한국 선교에 관한 부분도 다루고 있었습니다. 커닝햄의 부인과 오웬 W. 스틸의 부인이 그 책을 쓴 것 같습니다. <타오르는 횃불>은 일본 거주 "독립"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들 가운데, 가장 초기, 적어도 아주 초기 선교사들 가운데 한 사람인 커닝햄 선교사가 어떻게 해서 1907년에 일종의 선교사 대회와 같은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중국을 여행하게 되었는데와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에

들러서 아마 몇몇 그룹에서 설교하게 되었는데를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일본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온 한 한국인 젊은이가 한국 서울에 있는 YMCA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 가운데 첫 전담 전도자는 동경주재 커닝햄 선교부(또한 요추야 크리스천 미션이라고 부름)와 손을 잡고 일해 왔던 어떤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는 1924년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왔고, 곧이어 한국에 일곱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필자가 1939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들 일곱 교회 가운데서 인천에 있는 두 개 교회와 서울에 있는 한 개 교회에 대해서는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인범은 한국인 전도자였으며, 커닝햄이 한국 선교를 위해서 파송한 분 같았습니다. 그분이 앞에서 언급된 일곱 교회를 세운 초기 전도자였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1939년 한국에 왔을 때 그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한국에 거주하면서 사역한 최초의 미국인 선교사는 마이클 쉘리 형제였던 것 같습니다. 쉘리는 1934년경에 그의 아내와 딸과 함께 한국에 와서 9개월간 머문 것으로 압니다. 쉘리 가족이 그렇게 빨리 한국을 떠나야 했던 이유는 딸의 건강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쉘리 형제는 오리건 주 메드포드에서 목회활동을 해왔으며, 아마 지금도 거기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1939년 이전에 한국에 선교사로 온 또 다른 가족은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출신의 토마스 G. 히치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세워진 커닝햄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한국에 파송되었습니다. 1939년 6월경, 필자의 가족이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히치와 그의 부인 그리고 딸 앨리스를 만났지만, 그 당시 그들은 한국을 떠날 준비가 거의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1939년 여름이나 가을에 한국을 떠난 것으로 압니다. 그들이 떠난 이유는 이인범이 매우 정직하지 못했으나 그 사실을 일본 동경의 선교부는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이거나 후에 이인범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버리고 장로교단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한국에 크게 공을 세운 선교사는 1936부터 1940년까지 약 4년 동

안 사역했던 요한 T. 채이스였습니다. 채이스는 일본 동경에 있는 커닝햄 선교부에서 약 7년간 일해 왔었는데, 커닝햄과 의견 충돌이 있었고, 해고를 당한 후 그의 선교부를 떠났습니다. 1939년 필자를 한국 선교사로 발탁한 분이 바로 채이스였습니다. 채이스 부부는 1936년에 세 자녀와 함께 한국으로 건너와서 1940년 5월까지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아이 한 명을 더 낳았습니다. 채이스는 서울 게이조 쇼게추조 32-6번지에 위치한 큰 고가와 대지를 영국해외성서공회로부터 사들여 그곳에서 '한국 크리스천 미션(The Korean Christian Mission)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선교부 지하실에서 성경학교를 열었고, 1939년에 약 10여명의 남학생이 등록하였습니다.

채이스와 함께 일했고, 그를 도와 서울 지역에 교회들을 세웠던 초기 한국인 지도자들은 최상현, 김요한, 성낙소, 박관조, 김문화였습니다. 1939년 필자 부부가 한국에 왔을 때, 기독교회 선교부에 서울 전역에 걸쳐 교회가 다섯 개밖에 없었습니다. 일 년 안에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들 초기 교회들은 돈암동, 신당정, 내수정, 청량리, 산돈암동에 있었으며, 나중에 백낙중 목사가 시무했던 왕십리에 하나가 더 세워졌습니다. 1940년 여름, 필자와 김요한에 의해서 새롭게 침례 받고 교인이 된 33인과 함께 또 하나의 새로운 교회가 북한 동해안 초도리에 세워졌습니다. 후에 최상현이 협력하였습니다.

1939년과 1940년 필자는 처음으로 세 명의 한국인 소년을 알게 되었는데, 후에 한국교회와 고아원 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수경, 최운권, 노봉욱이었습니다.

1940년 가을, 채이스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 필자가 한국인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성경학교를 다시 열었으나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일본인 경찰이 선교부 마당에 들어서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경학교를 폐쇄하라고 시달하였습니다. 폐쇄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1월까지, 일본은 미국인 선교사들을 점점 더 탄압하였고, 그들의 특권을 박탈하였으며, 감시도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1940년 11월 서울주재 미국 대사관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짐을 꾸려 미국으로 돌아가도록 충고하였습니다. 필자 가족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11월 8일경에 미국으로 돌아갔으나, 일 년이 조금 지

난 후인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했을 때까지는 전쟁이 발발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채이스는 1941년 봄에 한국에 건너와 몇 주간 머무는 동안 선교부 소유지를 전항섭에게 임대하였고, 전씨는 그곳에 난로공장을 세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은 전씨에게 그 부지를 매입토록 강요하였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한국에서 모두 쫓겨 나갔습니다. 따라서 전씨는 그 부지를 선교부에 반환하기를 꺼려하였습니다. 채이스는 몇 차례에 걸쳐서 잠깐씩 한국을 방문하였지만, 그 부지를 되돌려 받지는 못했습니다. 전후 선교부 산하 초기 교회들은 단지 두 곳만이 남게 되었는데, 돈암교회와 후에 필운동 교회가 된 내수교회뿐이었습니다.

필자 가족은 1949년 2월 18일에 한국으로 되돌아왔고, 서울 연지동에 살았으며, 세 자녀 즉 브루스, 버지니아, 수잔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 성서 신학교는 1949년 3월 15일 필자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필자를 도와 신학교 교수로 봉직했던 분들이 최상현, 성낙소, 백낙중이었습니다. 수업은 연지동 집에서 이루어졌지만, 곧 이어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사직동 앞에 있는 필운동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학생 수가 70명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새로 세워지기도 했고, 인간이 세운 교파 교단들로부터 신약성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해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이 남으로 동으로 서로 번져 나갔고, 우이동, 김포, 미아리, 신탄진, 부강, 심지어는 광주, 목포, 부산에까지 세워졌습니다. 김은석 목사는 나중에 세워진 이들 교회들 가운데 상당수를 세우는데 공헌하였고, 미 공군 군목, 할 마르틴 목사를 통해서도 교육과 계몽이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의 출석 인원은 60-70명 정도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갑작스런 남한 침공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기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크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전쟁발발로 인해서 필자 가족을 포함해서 외국인 선교사들은 서울과 남쪽에 있는 그들 재산의 거의 모든 것을 갑작스럽게 버려야 했고, 일본이나 미국으로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필자 가족은 처음에 일본 후쿠오카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바로 동경으로 옮겼고,

그 후에는 카루이자와와 센다이를 거쳐 동경 세타가야에 다시 돌아와 추루마키초에 있는 오래된 일본 집을 하나 매입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동안 필자 가족은 한국에서 건너온 다른 많은 선교사들이 머무는 카루이카와에서 약 일 년가량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필자는 1950년 11월 한국에 돌아와 5주 동안 머물렀고, 서울 장충동에 있는 임대 건물에서 성경학교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12월에 일본으로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중공군이 북한 공산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투에 참가하였고, 전투가 치열해졌으며, 수천 또는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1951년 7월 3일까지 남자 선교사들이 한국에 돌아오기 시작하였고, 필자도 바로 그 날 서울에 돌아왔습니다. 필자는 부산에서 고아원을 시작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을 만나 뵈려고 갔었을 때, 그분은 필자더러 서울에서 시작하도록 권유를 하셨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필자의 오랜 친구, 당시 젊은 청년이었던 성수경을 찾았으며, 서대문 근처 송월동 32번지에 있었던 구 선교부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동행하였습니다. 전향섭은 탄환이 장전된 연발권총을 들고 우리를 쫓아왔으나 우리가 합법적인 재산 소유자임을 알고 물러갔습니다. 우리가 건물의 절반을 차지했고, 전향섭도 나머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약 일 년 후에 미국 대사관과 영국 해외성서공회의 도움으로 우리는 마침내 전씨를 몰아냈습니다. 그 대신 전씨는 정부가 일본인 자산에서 지불한 정착금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필자는 끝내 재산을 되찾게 된 것을 무척 기뻐했으며, 전쟁 중 폭격으로 부분적으로 파손된 구 건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많은 돈을 들여 수리를 마쳤습니다.

1951년 8월 4일 '크리스천 미션 고아원'으로 불린 첫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집 없는 소년 소녀들 19명을 서울시 송월동 32번지에 위치한 부서진 선교부 건물에 수용하였습니다. 곧 이어 수용인원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필자는 성낙소 목사의 아들이었던 성수경과 최윤권의 누이를 불러 돕도록 했고, 나중에 대전 판암동 고아원의 총무가 된 박중현, 낸시홍, 안나, 안 여사, 김동수, 한길자, 요리사 신 여사 등 다른 사람들도 와서 도왔습니다.

우리의 서울 고아원이 시작된 지 얼마 못되어 이종만 형제가 인천에 고아원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필자는 일정한 액수를 돕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었지만, 가능한 한 힘껏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5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낡은 2층 학교건물에 수용하고 있어서 아주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 고아원은 세워진지 21년이 지난 지금도 90명가량의 고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후 오래지 않아 우리 선교부는 송씨의 감독아래 있는 대전 관암동에 하나, 대구에 하나, 이렇게 두 개의 고아원을 더 세우는데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 그들 고아원들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전쟁 중에 4개의 고아원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제로 돕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그들은 몇 곳의 미군부대들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번은 필자가 아내와 자녀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일본에 가 있는 동안, 도널드 캠프스라는 한 공군병사가 서울 고아원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자기 고향에서 발행되는 신문, <미네아폴리스 스타>지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신문에 그의 글이 실렸습니다. 그 편지가 신문에 실리고 난 다음부터 고아들을 위한 헌옷 새 옷 보따리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왔고,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미국 전역의 여러 교회들과 기관들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1천 보따리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중의 일부는 전혀 새 옷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헌옷 가지 하나라도 버려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선교부 건물 3층 넓은 다락에 쌓아두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분류해서 그것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에 있든 많은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인의류는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떠난 1955년까지도 옷 보따리의 일부가 남아있었습니다. 우리는 1955년 한국을 떠나 1959년에 돌아왔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필자는 미시간, 웨스트버지니아, 인디애나 등지에서 목회를 했고, 미 육군 군목(중위, 후엔 대위)으로 미국, 필리핀, 일본에서 복무했습니다. 필자는 또한 버틀러 대학교 신과대학

에서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전쟁 중 또는 전쟁직후에 많은 수의 단기 선교사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한국을 찾았습니다. 로버트 웨스트, 알렉스 빌즈, 제인 키넬트가 일본에서 왔고, 폴 잉그램(나중에 전 가족이 합류함)이 일본에서 왔고, 젊은 미혼 여성 두 명이 미국에서 왔습니다. 리라 톰슨과 메리 루이즈 반힐 부인이 그들입니다. 리라 톰슨은 대부분 우리의 서울 고아원에서 일했습니다. 후에 부평으로 옮겨 그곳 고아원에서 먹고 자며 일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히람 힐러라는 상처한 미군과 결혼하여 두 딸을 낳았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아들을 한 명 낳았지만 미국에서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진실로 훌륭한 그리스도인 여성이었습니다. 메리 루이즈 반힐은 대전으로 갔고, 그곳 관암동 고아원에서 먹고 자며 일했습니다. 관암동 고아원은 송씨가 총무로 있었고, 나중에는 박중현이 총무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전염성 간염에 걸렸고, 요양하기 위해서 서울 선교부로 불리어 왔습니다. 리라 톰슨이 그녀를 돌보기 위해서 왔는데, 그녀 또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 때문에 반힐 부인은 1955년 가을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제인 키넬트도 반힐 부인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폴 잉그램 가족은 1953년에 한국에 건너와서 1954년 말까지 있다가 한국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필자의 가족은 1953년에 안식년으로 미국에 들어갔다가 1954년 여름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신학교 건물이 보기 좋은 3층 건물로 송월동 선교부 건물 옆에 세워졌습니다. 미군 부대가 자재와 건축의 큰 부분을 맡아 주었습니다.

필자는 1955년 봄에 첫 부인을 비통하게 잃고 세 자녀들과 함께 1955년 7월에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필자는 1956년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출신의 제인 키넬트와 재혼을 했습니다. 제인은 중국, 범마, 일본에서 활동했던 노련한 선교사였습니다.

제인은 폴리 찬이라는 중국 고아 소녀를 비공식으로 입양하여 데리고 있었는데, 미국으로 건너와 필자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현재는 결혼해서 인디애나 주에서 동독출신의 남편과 아들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해롤드 테일러 부부와 두 아들이 중국을 떠나 일본에서 일하고 있

었는데, 1955년말 경에 한국으로 건너와서 서울에서의 필자 가족의 선교사역을 인수받았습니다. 테일러는 새로 지은 신학교 건물을 포함해서 송월동의 선교부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 때문에 북서울 역천동에 새로운 부지와 건물을 구입할 때까지 몇 년 동안 신학교가 거의 폐쇄상태에 있었습니다.

필자 가족이 한국을 떠난 후, 1957년에 리차드 래쉬 가족이 한국에 와서 서울의 테일러 부부와 함께 일했습니다. 수개월 후 그들은 서울을 떠나 강릉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수년간 머물면서 전도사역을 하고 있었고, 한국의 형제들이 그 지역에 몇 개의 새로운 교회들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963년경에 부산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들은 부산에서 장성만 목사가 젊은 남녀 학생들에게 기술과 성경교육을 위해서 전문대학을 설립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국에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결정을 내린 후에, 자신들의 모든 일을 장성만 목사에게 넘기고 1971년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알렉스 빌즈 가족은 1956년에 한국에 와서 부산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은 음악과 설교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라디오 방송국을 설립하려고 시도했고, 몇 채의 건물도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라디오 사역을 돕도록 미국에서 몇몇 가족들을 데려 왔습니다. 1959년에 버어트 엘리스 가족과 조 세켈케 가족이 왔고, 플로라 매 구른지 양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크리스천 라디오 미션'의 심한 내분과 버어트 엘리스와 조 세켈케의 반대로 인해서 빌즈 가족은 한국정부로부터 결코 허가를 받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크게 실망한 그들은 1961년에 미국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구른지 양과 세켈케 가족도 벌써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직 버어트 엘리스 가족만이, 래시 가족과 장목사의 사역지로부터 꽤 떨어진 곳에 있긴 해도, 부산에 남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1959년 여름에, 현재의 힐 제인과 거의 두 살이 된 아기 대니로 구성된 필자의 새로운 가족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두 달 동안 부산의 빌즈 가족과 함께 지내다가 대전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59년 12월 1일, 대전 성

서 신학교가 힐 요한과 힐 제인에 의해서 태어났고,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일 년 가량 후에 한국 성서 신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름이 십중팔구 지속적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그때에는 한국 성서 신학교가 한국에서 운영되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였습니다. 서울 성서 신학교는 이전을 위해서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필자의 가족은 한국에 5년간 머물렀는데, 생애 가장 긴 기간이었습니다.

한국 성서 신학교 교수들로는 최요열, 이은수, 버지니아 힐, 딕 래시, 이신(후에 이만수로 부름), 김이영(후에 김찬영으로 부름), 소교민, 김태수, 심영진, 김은석, 김치연, 김희영, 임춘봉, 박태규, 최용호, 김성철, 천명화, 프레드 호프만, 힐 제인 그리고 힐 요한(1959-1971년까지 교장 역임)이었습니다.

1959년 개교 이래 한국 성서 신학교는 90명 이상의 젊은이들을 졸업시켰습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목회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1969년 봄에, 대전에 새로운 신학교 건물의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오는 (대부분의) 자금과 한국의 친구들로부터 오는 약간의 자금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1972년 늦은 봄이나 초 여름까지는 완공되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한국 선교 30주년 기념일에 필자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조 가맨으로부터 상당한 도움도 받았지만, 결국 김찬영과 그의 넉넉한 미국인 후원자들의 힘 있는 도움으로 1972년에 완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크게 성공적으로 사역한 또 한 분의 선교사는 조 가맨이었습니다. 조 가맨은 1967년 가을에 처음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1968년 초까지 김희영 통역과 함께 한국에서 많은 부흥집회를 열었습니다. 수천 명이 회심하고 조 가맨 형제로부터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필리핀, 인도, 일본 등지에서 좀 더 많은 집회들을 갖기 위해서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1969년에 그의 새 부인 린다와 친구 폴 코모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고, 1969년부터 1970년까지 안식년으로 고국에 돌아간 필자의 가족을 대신해서 사역했습니다. 또 다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조 가맨의 능력 있는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으며,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전도팀은 조 가맨, 김히영, 심영진, 폴 코모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으로부터 27,000불을 모금하였고, 심하게 화상을 입은 소녀를 미국으로 보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얼굴과 많은 피부이식들을 통해서 보기 좋은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 가맨은 또한 새로운 신학교 건물을 위해서 5,000불을 모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부인 린다와 어린 딸과 함께 선교사로써 이스라엘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과 고아원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1960년, 필자의 나이든 두 딸, 버지니아와 수잔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한국에 왔습니다. 오정리에 있는 한국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졸업한 후, 버지니아와 수잔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버지니아와 그녀의 형제 브루스는 미주리 주(州) 조플린에 있는 오자크 성서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버지니아는 1966년 한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고아원은 '버지니아의 고아원'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대전 고아원에서 22명의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고아들과 네 명의 교사 또는 보모들과 얼마간 고아원에서 생활했던 버지니아를 위해서 일층짜리 건물이 보기 좋게 지어졌습니다. 필자 가족이 1969년에 안식년으로 고향에 돌아가게 되었는데, 버지니아도 이때 함께 미국으로 돌아갔고, 미국에 남아 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녀는 1971년 10월 7일 하비 벤저와 결혼하였고, 미주리 주 아스베리 루트 1번지에 보금자리를 꾸몄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한국의 고아들을 위해서 후원금을 관리하는 현지 에이전트로 지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1969년 11월 29일, 필자 부부는 엄마가 죽은 세쌍둥이 한국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한 아이는 후에 죽었고, 나머지 링컨과 더그는 필자 부부가 양자로 입적하였습니다.

1963년 2월 20일에 딸인 티나 메이가 대전 선교부에서 태어났습니다. 같은 해에 필자는 미국에 있는 한 신학대학원으로부터 신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필자 부부는 1964년 여름 안식년을 맞아 유럽으로 경유하여 미국

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가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 유럽 여행이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파리에서 심카라는 작은 자동차를 구입해서 그걸 타고 북유럽의 여러 곳을 관광하였고, 8월에 배로 미국에 부쳤습니다. 미국에서 일 년 동안 안식년을 보내는 동안 그 차를 이용하였습니다. 필자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한국에 관해서 미국 교회들에 알리는 동안, 필자의 처와 네 자녀들은 미주리 주(州) 조플린에 살고 있었습니다. 필자 부부가 안식년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부산에서 딕 래시가 대전에 올라와 한국 성서 신학교에서 가르쳤으며, 교수들과 직원들의 봉급을 지급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업무를 살폈습니다. 그는 대전뿐 아니라, 부산과 강릉의 일을 모두 잘 해냈습니다.

필자 가족의 고아원 사역은 대전에 있는 '버지니아 고아원'의 설립과 유지뿐 아니라, 1959년 이후 세 곳의 다른 고아원들, 즉 88명의 어린이를 수용한 부산 흥경채 여사의 성광원, 현재는 영아원이지만, 90명에서 145명까지 수용했던 연무대의 에텐 보육원, 1951년 이후 인천에 세워진 인천 그리스도의 교회 고아원에 주는 지속적인 후원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필자 부부는 1951년부터 1955년까지 서울과 인천과 대전과 대구를 이어지는 네 개의 도시에서 고아원을 세우도록 도왔거나 운영하였고, 1959년부터 1972년까지 인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른 네 곳의 고아원을 세우도록 도왔거나 운영하였습니다. 많은 미국의 후원자들이 많은 고아들을 위해서 확보되었고, 그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었습니다. 대전과 연무대의 에텐 보육원에서 많은 아이들이 미국에 보내어져 새로운 미국인 양부모와 함께 살게 되었고, 매우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1962년 고든 패턴 가족이 서울의 해롤드 테일러 가족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들은 서울 성서 신학교의 경영을 돕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고든 패턴은 새로운 믿음사역에 뛰어들었는데, 성서주석과 같은 많은 종교서적들과 많은 전도용 전단들을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고, 출판하고, 공급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이 그의 한국에서의 가장 큰 업적일 것입니다.

프레드와 엘리 호프만 부부는 필자 가족과 김찬영 가족 그리고 한국 크리스천 미션 산하 한국 교회들과 동역하기 위해서 1971년에 한

국에 왔습니다. 엘리는 오정동 미국 유치원에서 가르칩니다. 프레드는 한국 성서 신학교에서 영어 성경을 가르치면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의 작업을 감독하는 일과 고아원의 많은 일과 건물 유지를 돕고 있습니다. 그와 엘리는 한국어를 매우 열심히 배우고 있으며,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으로 건너가 신학대학과 종합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와 그들 자신의 민족을 섬기는 미국 선교사들로써 뿐만 아니라, 본토 교회의 지도자들로써 섬기는 많은 한국인 젊은이들에 관해서 지면을 할애하고 마땅한 점수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서울의 최윤권, 최순국, 안재관이 포함되는데,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우리 교단 신학교인 대한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를 서울에 세운 이들입니다. 미국인 부인 패트와 두 아들 피터와 필립을 데리고 1970년에 한국에 돌아온 대전의 김찬영은 1972년 1월 21일 이후 지금 한국 성서 신학교의 새로운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1971년에 한국에 돌아온 이만수 혹은 이신은 대한 신학교, 이화 여자대학교, 연세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한국학생들은 신영기, 유근희 김히영 같은 이들이며, 부산의 장성만 목사도 신시내티 성서 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부산에서 재학생 340명 규모의 전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논산, 풍산, 장호원, 충주에 세워졌던 기독교 학교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록 이들 가운데 두 곳이 자금부족으로 문을 닫아야 했지만, 수백 명의 가난한 소년 소녀들이 이곳 학교들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필자의 가족은 1939년부터 시작된 한국에서의 역사(歷史)를 마치고, 1972년 6월에 한국의 선교사역에서 은퇴하고, 모든 것을 본토 한국인들과 한국에 보내어질 젊은 선교사들, 만약에 그와 같은 젊은이들이 발견되고 모집되어 질 수 있다면, 그들에게 인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문은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에서 찾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제7장 교회 설립과 후원

1. 1950년대



왼쪽 첫 번째 성낙소 목사



첫 번째 줄 중앙 힐 요한 선교사, 오른쪽 두 번째 김은석 목사



서울 송월동 51년경, 오른쪽 힐 선교사, 네 번째 이신 목사,
첫줄 왼쪽에서 네 번째 김태수 목사



수정동 그리스도의 교회
부산시 동구 수정동 .대지공원 1952년 2월 20일 개척



미확인 교회



동량 그리스도의 교회. 창립일자 51년 6월,
창립자: 김은석 목사, 정찬성 목사, 최춘선 목사
본래 조선 기독교회로 호칭되어 오던 것을 상기명의 창시자들의 선교활동으로 조동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였으며,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건지부락 산 1로 예배당을 이전하여 건립하였다. 정찬성 목사가 미군부대에서 드럼통을 구입하여 본 교회를 건립하였다. 정찬성 목사는 동막교회(충북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도 같은 방식으로 건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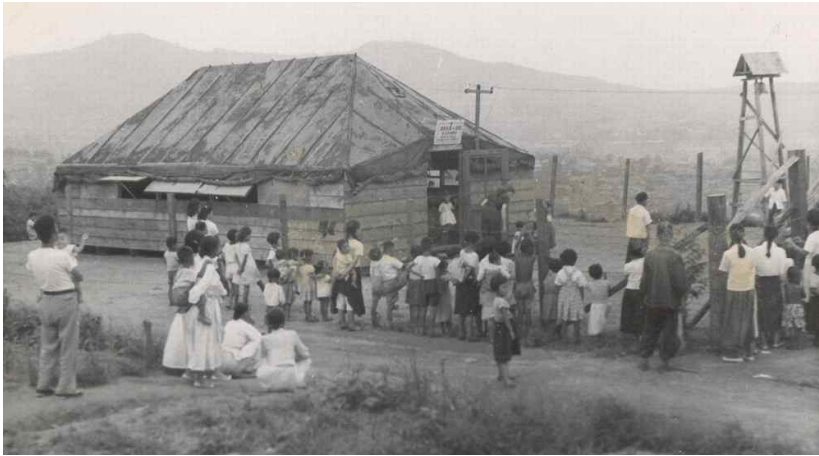
추운 겨울 서울 한강에서 거행된 침례식



50년대 인천 송의 교회 건축
(이종만 목사, 인천 보육원)



2. 1959-72년



1950년대의 도원 그리스도의 교회



1950년대의 도원 그리스도의 교회



1952년 10월 3일 개척. 신갈 그리스도의 교회.
왼쪽 첫 번째 이기구 담임 목사.



오른쪽 성경을 들고 있는 분이 이기구 담임목사



제1회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 1959년.
앞줄 좌측부터 네 번째 성낙소 목사, 뒷줄 좌측부터 심영진 목사, 네 번째
장성만 목사, 여섯 번째 최요열 목사, 우측 네 번째 이신 목사.



1961년 8월 17일, 부강교회에서 열린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



1961년 8월 17일, 부강에서 열린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부영초등학교 운동장 계단). 앞줄 우측부터 힐 요한, 장성만, 박재관, 김동열, 이종만, 정인소. 김찬영(뒤에서 2번째 줄 좌측부터 2번째). 김성철(중앙 웃고 있는 사람), 둘째 줄 우측부터 심영진, 이신, 한 사람 건너 장주열, 성낙소, 셋째 줄 우측 5번째 안일승, 끝줄 우측에서 4번째 고재윤.



1961년 8월 17일, 부강교회에서 열린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
우측 첫 번째 김찬영.



1962년 신탄진 천막에서 열린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



60년대 초중반에 한국 성서 신학교에서 열린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
뒷줄 우측에 딕 래시, 할 요한, 8번째 최용호, 좌측에 할 제인, 셋째 줄 우측부터 6번째 김종현, 8번째 고광석, 14번째 천명화, 둘째 줄 우측부터 장주열, 노봉옥, 임춘봉, 장성만, 최요한, 9번째 조규석, 앞줄 우측부터 이종만, 4번째 안일승.



좌측부터 심영진 목사, 이신 목사, 고광석 목사



뒷줄 우측부터 두 번째 장성만 목사, 네 번째 김찬영 목사, 61-62년경.



안양 그리스도의 교회 침례식 기념. 1961년 3월 19일, 뒷줄 가운데
왼쪽부터 장주열 담임목사, 힐 선교사, 김찬영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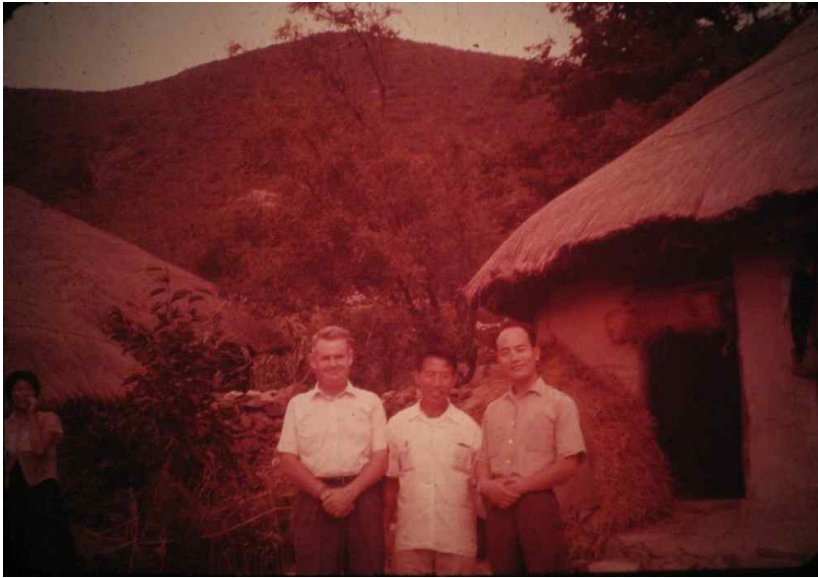
안양 그리스도의 교회 건축. 1962년. 중앙 장주열 담임목사,
좌우 힐 선교사와 김찬영 목사



안양 그리스도의 교회 건축. 1962년.
두 번째 줄 오른쪽 장주열 담임목사, 첫줄 왼쪽 김찬영 목사



두계 그리스도의 교회 1962년. 좌측 힐 선교사 옆 이? 담임목사,
우측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각각 담임목사의 딸과 사모.
35명이 침례 받음.



두계 그리스도의 교회 1962년. 좌측 힐 선교사,
중앙 이? 담임목사, 우측 김찬영 목사



낙골(Nok Goal) 교회 1962년경, 좌측 김찬영 목사, 힐 선교사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 집수리 1962년



경북 안동군 풍산면 죽전동 풍산 그리스도의 교회 1960년대 초.
5명이 침례 받음.



국동 그리스도의 교회



대전시 죽동 그리스도의 교회. 우측부터 김성철 목사, 힐 요한 선교사,
김철성 목사, 좌측 끝 김히영 교수



대전 선화동 그리스도의 교회 1965년



대전 선화동 그리스도의 교회 김치연 담임 목사



황정 그리스도의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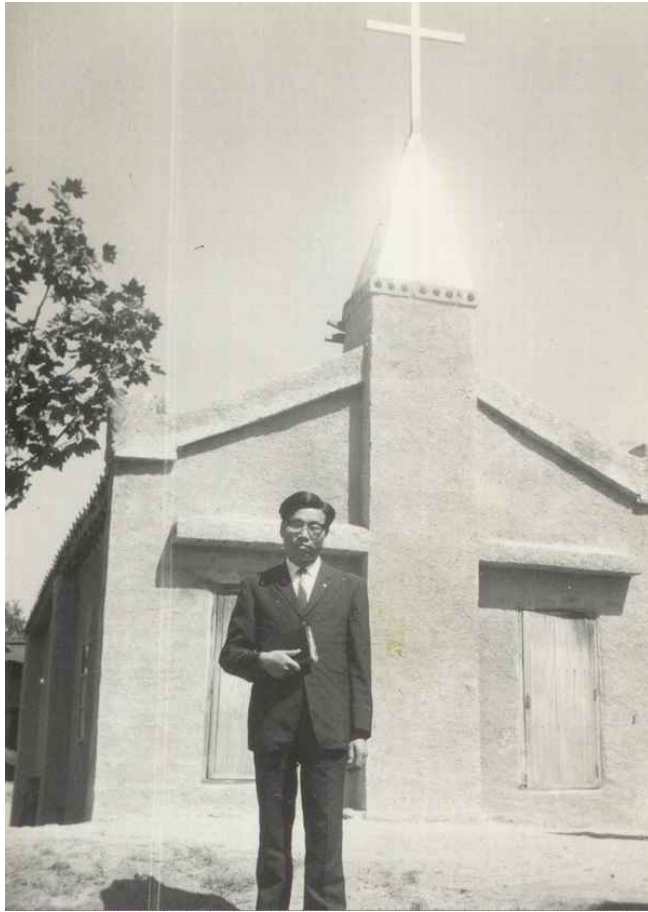
조기암 그리스도의 교회 1967년 2월. 우측 지철휘 담임목사.
라명환 목사가 6명의 교인으로 개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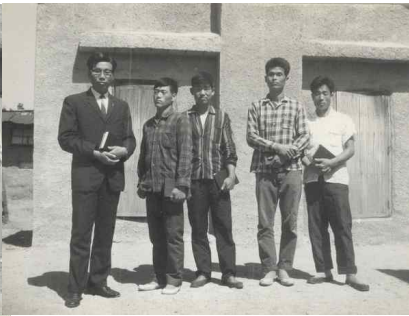
지철휘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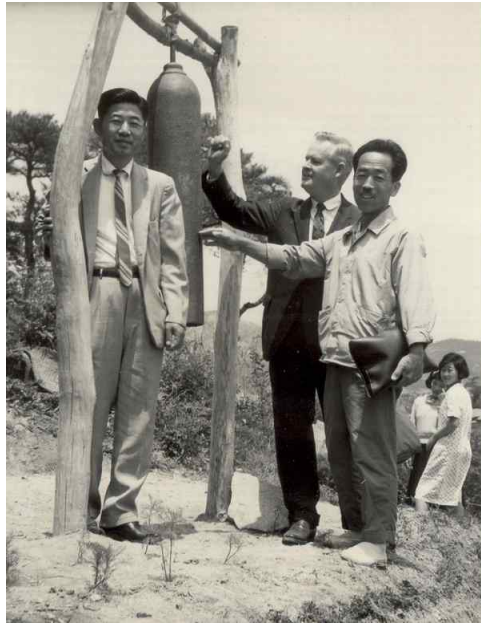


좌측 지철휘 목사, 우측부터 라명환 목사, 박태규 교수



라명환 목사





고광석 목사





헌당식 예배 1968년 1월 28일



달전 그리스도의 교회 1968년, 우측에 박태규 교수



충남 천원군(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병천 그리스도의 교회, 김순철 전도사



보은 교회



대전시 신탄진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당 신축 1969년
우측부터 김히영 교수, 김용순 담임목사, 덕 래시 선교사, 박태규 교수



신탄진 그리스도의 교회 1969년 신축당시



판암동 그리스도의 교회 및 애생원(愛生園).
김은석 목사가 50년대에 가끔씩 방문하였다.



대전시 판암동 교회 1969년



대전시 신흥동 그리스도의 교회
고광석 목사



대전시 가양동 그리스도의 교회 1969년
전상희 목사



문암 그리스도의 교회 안일승 목사



좌측 안일승 목사.

힐 요한 선교사 귀국 후 오랫동안 한국의 대리인으로 수고하였다.



뒤쪽 중앙 천명화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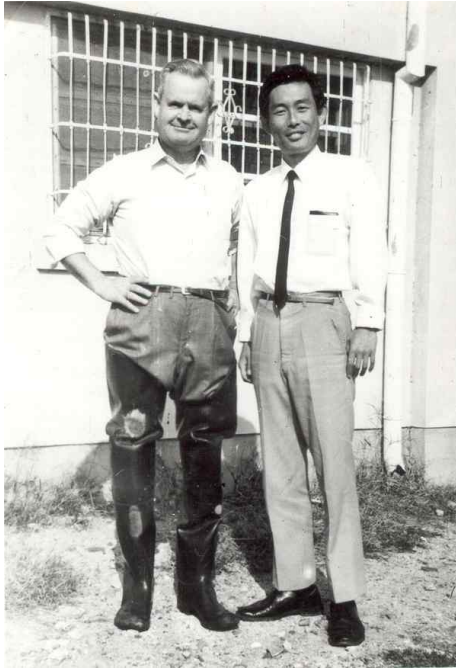
고재운 목사(힐 선교사 좌측)



전주 금암 그리스도의 교회
신축 성전. 최용호 목사, 힐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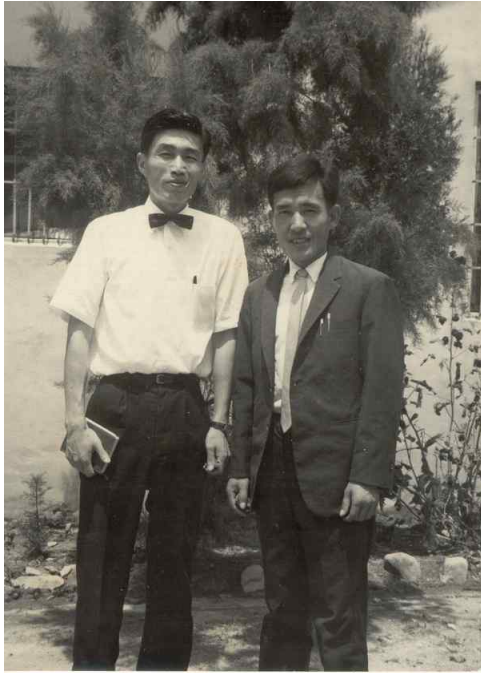


벤엘(상삼) 그리스도의 교회
뒷줄 우측 첫 번째 석만영 목사



김승일 목사, 힐 요한 선교사





장호원 그리스도의 교회,
안병호 목사





좌측 박옥채 목사, 우측 조자호 목사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양촌 그리스도의 교회 1972년. 좌측 박태규 교수, 우측 인원영 목사.



좌측부터 조남중 목사, 조규석 목사, 김태수 교수



우측 남충열 목사



70년대 전주교회



전주 그리스도의 교회



뒷줄 김찬영 목사, 밥 위릭 선교사

3. 언급된 교회들의 발전된 모습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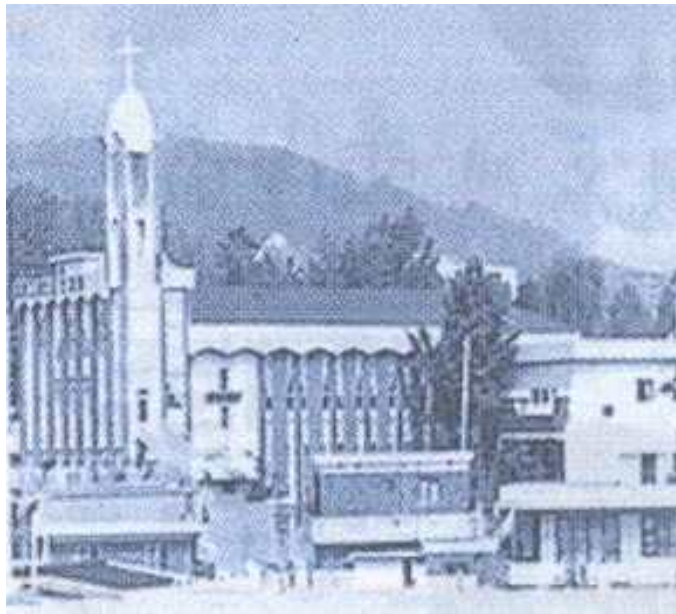
부산 동서대학교 대학교회, 장성만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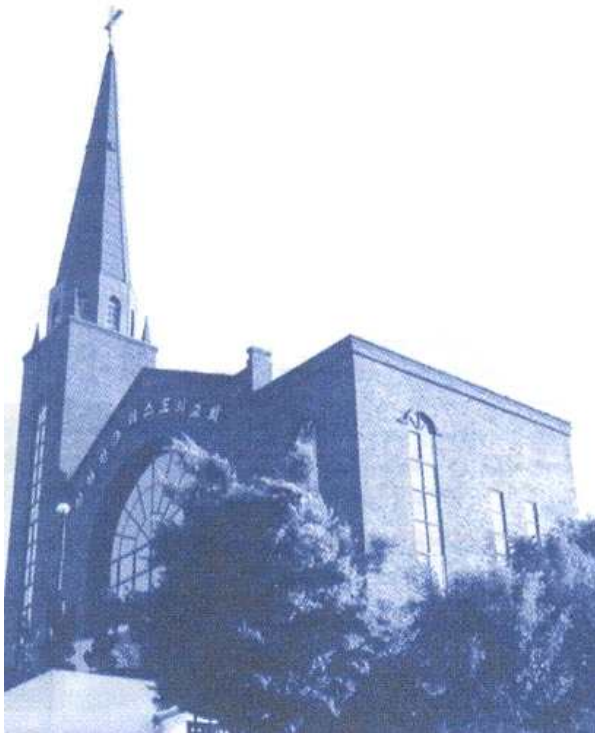
신갈 그리스도의 교회



도원 소망 그리스도의 교회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신탄진 그리스도의 교회



양촌 그리스도의 교회

전주 그리스도의 교회



동량 제일 그리스도의 교회



제8장 보육원 설립과 후원

1. 59-72년

힐 요한 선교사는 대전에 있는 '버지니아 보육원'의 설립과 유지뿐 아니라, 1959년 이후 세 곳의 다른 보육원들, 즉 부산 흥 여사의 성광원, 충남 논산 노봉옥 장로의 에덴 보육원, 1951년 이후 인천에 세워진 이종만 목사의 인천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에 지속적으로 후원하였다. 힐 요한 선교사는 인천을 뺀 나머지 보육원들의 설립에도 관여하였고, 고아들의 미국 입양에도 힘썼다.



대구 배성 보육원 1952년 설립



인천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 1952년 8월 1일 설립(<http://www.icch.or.kr>)
1955년 12월 25일 성탄절(▲)





논산 에덴 보육원
1959년 10월 15일 설립(<http://edentwon.net>)



논산 에덴 보육원 설립자 노봉욱 원장



1960년 초의 에덴 보육원





중앙에 힐 요한 선교사와 노봉옥 장로



에덴 보육원 침례식



대전 판암동 그리스도의 교회 애생원
1950년대 초 설립





부산 성공원



1960년대 초 미확인 장소
충남 부여군 합송리 구애보육원(?)



대전 버지니아 보육원

제9장 기독교 학교 후원

1. 59-72년

힐 요한 선교사는 논산, 풍산, 장호원, 충주에 세워졌던 네 개의 기독교 중학교들과 이리 땡아 어린이학교를 지원하였다. 그가 지원했던 이들 학교들 가운데는 자금부족으로 두 곳이나 문을 닫았지만, 65년의 선교소식지에 의하면, 힐 선교사는 이들 수백 명의 가난한 소년 소녀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모금에 힘썼다.



경북 안동군 풍산면 죽전동 풍산 중학교



논산 순의도 중학교.
에덴보육원의 설립자 노봉욱 원장이 미국 미시건 주립대학 철학교수를
역임한 Robert M. Snyder 박사의 지원을 받아 설립하였다.



청주 근교 학교에서 새로 설교 한 곳 1969년 4월



이리 맹아 학교



청주 교도소 19070년 8월 28일 설교